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영국의 온라인보험시장 분석과 시사점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시사점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생보사의 보험판매구조 변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 개선

손해보험회사의 정부추진 정책성보험 참여현황

신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동향

국민연금 전문가 80% :연금개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해외보험 동향

북미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중국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영국의 온라인보험시장 분석과 시사점	1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시사점	13
보험산업 개관	20
보험산업 환경	23
1. 해외 경제	23
2. 국내 경제	25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7
보험지표 동향	29
1. 보험산업 총괄	29
2. 생명보험	31
3. 손해보험	42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53
1.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생보사의 보험판매구조 변화	53
2.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 개선	56
3. 손해보험회사의 정부추진 정책성보험 참여현황	58
4. 신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동향	63
5. 국민연금 전문가 80% : 연금개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67
해외보험 동향	70
1. 북미 동향	70
2. EU 동향	77
3. 일본 동향	91
4. 중국 동향	95
통계표	101

테 마 진 단

◆ 영국의 온라인보험시장 분석과 시사점

안철경 연구위원

1. 서론

국내 온라인 손해보험시장은 외형적으로 두드러진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온라인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악화로 온라인시장에 대한 재검토 및 대응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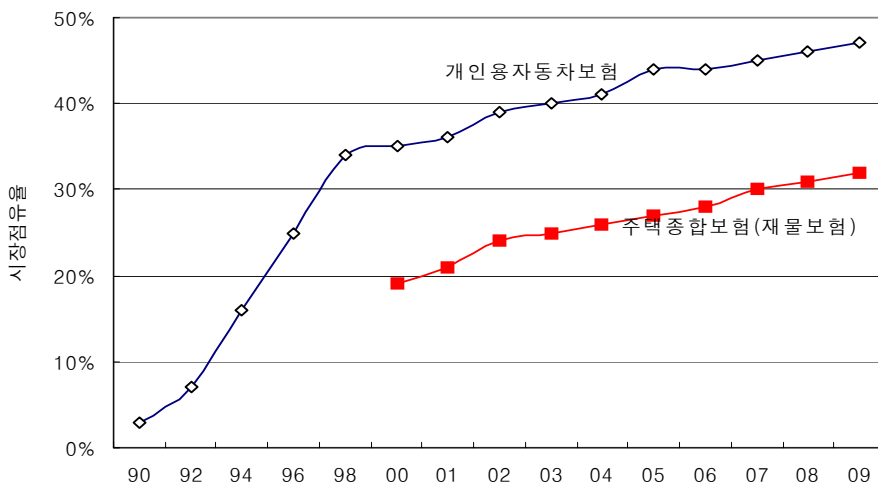
- 국내 온라인시장은 영국에 비해 15년가량 늦게 출범하였으나 초기 진입자들이 영국의 온라인 보험회사를 벤치마킹하면서 영국시장과 유사한 사업형태 및 시장구조를 형성하며 외형적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함.
-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 온라인전업사로서 교보, 다음, 교원나라, 현대하이카 등 4개사가 있고 오프라인 손해보험회사 중에서도 8개사가 온라인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삼성화재와 AIG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시장에 진출
- 2006년 1/4분기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전년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41.8%로 오프라인의 2.2%보다 매우 높으며, 시장점유율도 전년 동기 8.8%에서 11.8%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온라인채널로 인한 경쟁격화가 온라인보험사는 물론 온-오프 겸업사의 경영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온라인채널에 대한 분석과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온라인보험이 활성화된 영국의 온라인 보험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장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온라인 보험시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영국의 온라인 보험시장 현황

영국은 온라인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서 2009년 온라인 점유율이 자동차보험의 47%, 재물보험의 32%로 전망되고 있음.

- 영국은 네덜란드, 스웨덴과 함께 온라인채널(TM, 인터넷 등)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온라인보험사를 포함하여 20여개 이상의 온라인 브랜드가 개인보험시장에서 활동함.
- 온라인채널은 개인손보시장에서 9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1990년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서 3%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자동차보험의 47%, 재물보험의 32%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온라인채널의 상품별 점유율 추이



주 : 2004, 2005년 추정, 그 이후 예측치

자료 : Datamotor, UK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5; UK Motor Insurance 1998

- 영국의 개인손해보험 판매채널의 흐름은 온라인(direct)채널 주도, 파트너쉽(partnership) 채널의 성장과 전통채널(brokers)의 하락 추세를 보임.

- 온라인채널은 2000년 29%에서 2004년 35%로 6%p, 파트너쉽채널은 5%에서 15%로 10%p 증가한 반면 전통채널인 중개사채널은 42%에서 29%로 13%p 하락함.

* 파트너쉽채널은 일종의 제휴관계 채널로 영국보험시장의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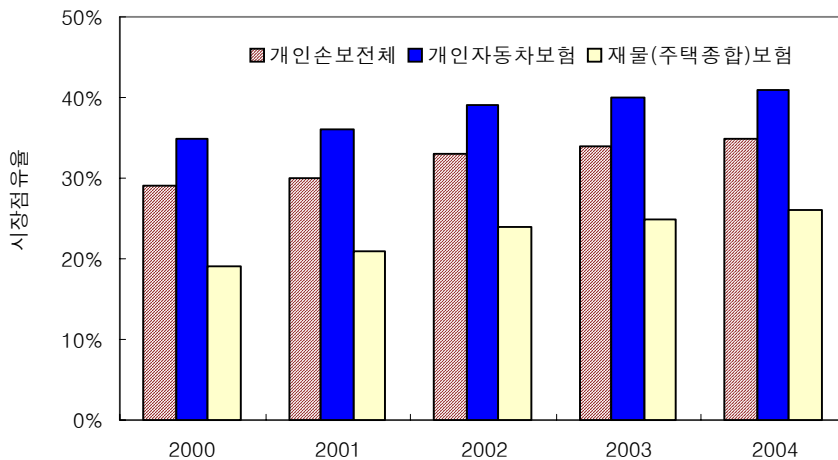
<표 1> 개인손보시장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채널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온라인(Direct)	29%	30%	33%	34%	35%
중개사(broker)	42%	38%	33%	32%	29%
파트너쉽	5%	7%	10%	12%	15%
은행&건설공제	16%	16%	16%	16%	16%
회사직급	5%	5%	5%	4%	3%
기타 대리점	3%	4%	3%	2%	2%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5

- 온라인채널은 기업정보험 분야보다 개인보험시장에서 활발하며,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을 위주로 점차 재물(주택종합)보험, 여행·애완동물·상해보험 분야로 확산되어 2000년 이후 주도적 채널로 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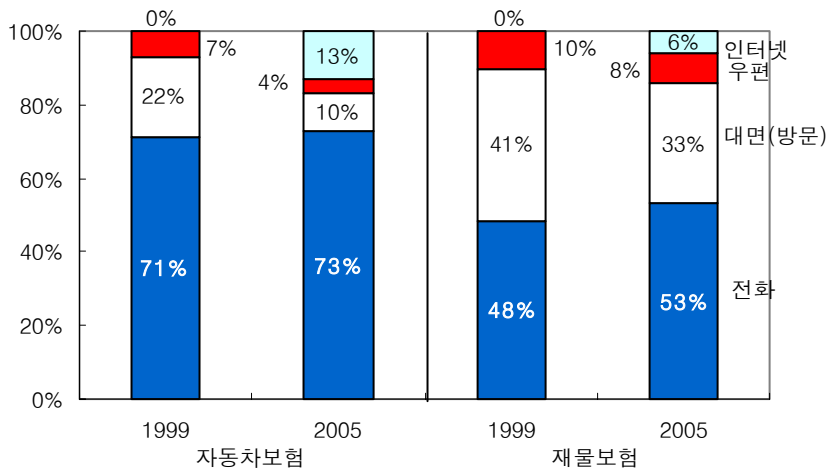
<그림 2> 온라인채널의 상품별 시장 점유율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5

- 온라인채널의 시장 점유율(2004년 기준)은 개인보험시장 전체에서 35%를 차지하며 종목별로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시장에서 41%, 재물보험(주택종합)시장에서 26%를 차지함.
- 온라인채널의 급속한 성장은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시 활용하는 수단(platform)이 온라인화 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함.
- 보험상품 구매시 활용수단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면(방문)판매 활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99년 22% → 05년 10%), 전화 활용 73%, 인터넷 활용 13%, 우편 활용 4%로 전체 90%가 온라인 수단을 활용함.
- 재물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높지는 않지만 온라인 수단이 67%(전화 53%, 인터넷 6%, 우편 8%)로 대면판매(33%)에 비해 높은 수준임.

<그림 3> 소비자의 보험가입시 활용수단(Platform)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5

3. 온라인 보험시장 분석 및 특징

은행 중심 금융그룹이 온라인보험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저비용 전략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퇴출 온라인사 발생), 성공적 온라인사의 경우 효율적 광고매체 활용, 온라인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재보험 및 상품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분산 전략을 추진함.

- 개인보험시장은 온라인채널의 주도 하에 영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온라인보험 또는 온오프 복합채널(multi-channel)을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보험사가 온-오프겸용사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최근 5년간(2000~04) 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온라인보험사인 Direct Line 9.1%, Churchill 24.6%로 시장평균 5.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대표적인 온오프겸용사인 Norwich Union과 R&SA는 각각 -1.1%, -5.9%로 저조한 실적을 보임.
- 개인보험시장의 경우 금융빅뱅의 결과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은행 중심의 거대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이 온라인보험사를 매체로 개인보험시장의 리더로 등장하며 보험산업 재편을 주도함.
 - 1994년 자동차보험 대형 10개사중 2004년에도 대형사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4개사(R&SA, Direct Line, Norwich Union, CIS)에 불과하며, 이들 대형자동차보험사 중 대부분은 전업채널이든 복합채널이든 온라인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 RBS(Royal Bank of Scotland)그룹은 보험사업 확장을 위해 Direct Line그룹 외에도 Churchill그룹을 인수하여 영국 최대의 개인용자동차보험회사로 등장함.
 - RBS그룹(모회사는 은행)은 보험자회사로 온라인보험사인 Direct Line, Churchill, Privilege 등을 비롯 중개인 채널인 NIG, Devitt Insurance, Finsure, 파트너쉽 채널인 UK Insurance 등을 소유한 영국 최대의 보험그룹을 구축하고 있음.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보험사인 Esure의 경우도 HBOS(Halifax and Bank of Scotland)의 자회사로 설립(1999)되어 실적을 내기 시작한 2001년 이후 4년만에 10대 개인자동차보험회사로 성장함.

- 회사간 활발한 M&A로 보험산업 재편 결과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994년 50% 수준에서 2004년 72%로 시장집중도가 크게 상승함.

<표 2> 영국의 개인자보시장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 현황

1994		2003		2004	
R&SA	8.0%	RBS*	27.8%	RBS	30.6%
Direct Line	7.9%	Norwich Union	13.6%	Norwich Union	14.1%
Eagle Star	7.3%	R&SA	5.2%	Zurich FS	4.9%
Norwich Union	6.3%	Zurich FS	4.6%	R&SA	4.6%
General Accident	3.8%	CIS	4.2%	Fortis	4.0%
Guardian	3.6%	Fortis	3.6%	CIS(협동조합)	3.9%
AGF	3.5%	AXA	3.3%	Liverpool Vic.	2.8%
Commercial Union	3.1%	Groupama	3.0%	AXA	2.4%
CIS	3.0%	Provident	2.5%	Esure	2.4%
London&Edinburgh	2.7%	Liverpool Vic.	2.4%	Allianz	2.1%
상위10개사 계	49.3%		70.2%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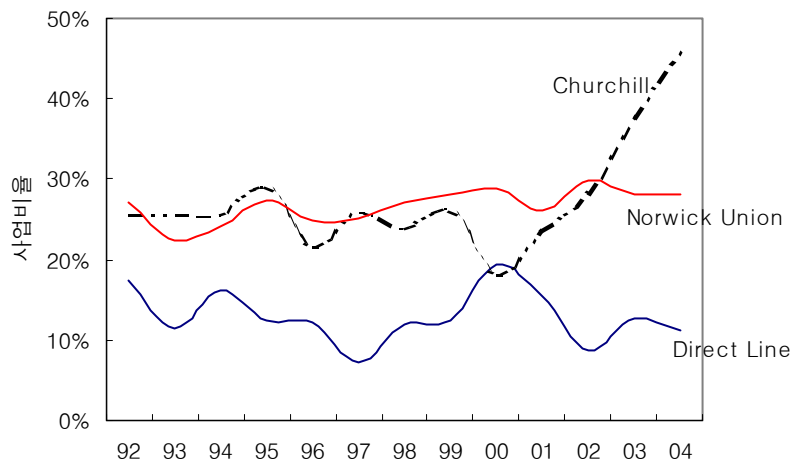
주 : RBS Group은 산하 자회사의 실적을 합산한 것임(Direct Line 12.3%, Churchill 7.3%, UK Insurance 8.4, NIG 2.6%)

자료 : Datamonitor, UK Motor Insurance 2005

-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전통채널에 비해 낮은 가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온라인보험사의 경우 경쟁격화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가능케 했던 사업비 절감과 그 효과적 수단이었던 중간 유통마진 축소라는 이점이 상실되어가는 과정임.
-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선도기업(Direct Line), 철저한 차별화 전략(Admiral) 이외의 상당수 보험사들은 온라인 조직의 경쟁력을 상실함.
- 성공사례인 Direct Line의 경우 설립 초기 과다한 사업비 지출이 2~3년내 정상화되고 저비용채널로 정착 후 양질의 관리시스템, 상품다각화, 재보험 활용을 통한 리스크 분산으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됨.
- 반면 온라인보험사(온라인브랜드 포함)의 난립으로 광고선전비 급증, 손해율 관리 실패, 기타 관리비용의 증대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최대 장점인 가격 경쟁우위 전략의 상실이 우려됨.

- 사업비율 측면을 분석하면 온라인보험 선두주자인 Direct Line의 경우 9%~15%, Admiral그룹의 경우 15%~18%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밖의 온라인보험 및 겸업사는 시장평균 수준 또는 그 미달 수준임.
- 겸용채널사인 Norwich Union, R&SA의 경우 26%~30%대로 시장평균(26~27%) 수준이며, 온라인보험사인 Churchill, Esure(신설사 99년)의 경우 각각 23%~45%, 34%~58%로 온라인사의 최대 강점인 비용 이점을 상실함.

<그림 4> 회사별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추이



자료 : Datamonitor, UK Motor Insurance 각 년도

- 온라인보험사의 수수료율 및 일반관리비율을 보면 수수료율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일반관리비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Direct Line은 재보험출재와 양호한 실적관리로 이익수수료(profit commission) 등이 발생하여 수수료율은 매년 부(-)의 값을 지나 일반관리비는 오프라인보험사들보다 오히려 많이 지출함.
- 대표적으로 높은 사업비율을 보이고 있는 Churchill의 경우 수수료율은 기존 오프라인 보험사들과 유사하나 일반관리비 지출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사 손익에 악영향을 미침.

<표 3> 자동차보험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율

(단위 : %)

회사별		수수료율			일반관리비율		
		2000	2002	2003	2000	2002	2003
온라인 보험사	Direct Line	-15.8	-14.5	-11.9	35.2	23.2	24.5
	Churchill	4.6	5.9	7.3	13.6	22.0	30.3
	Esure	-	0.6	0.9	-	47.7	34.7
온라인 겸업사	Norwich Union	11.1	10.7	10.2	17.7	19.0	18.0
	R&SA	7.4	7.0	6.9	23.1	20.3	20.8
	Zurich FS	8.0	7.2	7.5	18.1	20.3	20.9
	UK Ins	0.0	3.6	10.3	11.7	16.1	13.4
	Allianz	11.8	10.6	10.6	13.8	15.1	15.5

주 : 일반관리비율은 손해조사비용(claim handling expense)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Datamonitor, UK Motor Insurance 2004/5

- 온라인보험사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케팅 부문이며 특히 특성에 맞는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경쟁력의 하나임.
- Direct Line의 경우 온라인 시장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고객들에게 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온라인보험사의 경우 선발사인 Direct Line, Churchill등은 개인보험료의 2% 수준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후발사인 Esure의 경우 8% 수준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어 사업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옴.
- Admiral Group의 경우 자사 온라인 브랜드별 목표고객에 따라 광고매체도 달리 하여 효율적으로 광고전략을 수립함.
 - Diamond(여성고객)는 TV 55.4%, DM 23.0%, 신문 14.4%, 옥외광고 7.1% 지출, Admiral(고급차시장)은 TV(73.4%), 신문(20.3%), Elephant(온라인고객)는 TV(86.6%), 신문(10%)에 광고비를 지출함.

<표 4> 회사별 광고비 지출현황 및 광고비 비율(2004)

회사별		개인보험료(a) (000 £)	광고비(b) (£)	광고비율 (b/a)
온라인 보험사	Direct Line	1,449,743	26,438,996	1.824%
	Churchill	839,960	17,024,324	2.027%
	Esure	250,747	19,041,887	7.594%
온오프 겸용사	Norwich Union Direct	875,196	27,495,227	3.142%
	R&SA(More Than)	540,337	20,855,991	3.860%
	Allianz Cornhill Direct	99,103	1,046,490	1.056%
	Zurich FS	219,224	2,600,390	1.186%
기타	UKI	1,054,912	239,778	0.023%
	CIS	652,947	783,672	0.120%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5

- 온라인채널 상품은 단일상품(예 :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채널 측면에서 TM, 인터넷 등 직접판매채널에 적합한 개인보험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함.
- 온라인보험사라 할지라도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널 인프라를 활용, 채널 효율성 및 사업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방식이 유사한 종목으로 업무범위를 확장함.
 - 자동차보험에서 점차 상해보험, 주택종합보험, 여행보험 등으로 판매상품 범위를 확장하고 규모가 큰 보험그룹의 경우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기타 금융상품까지 판매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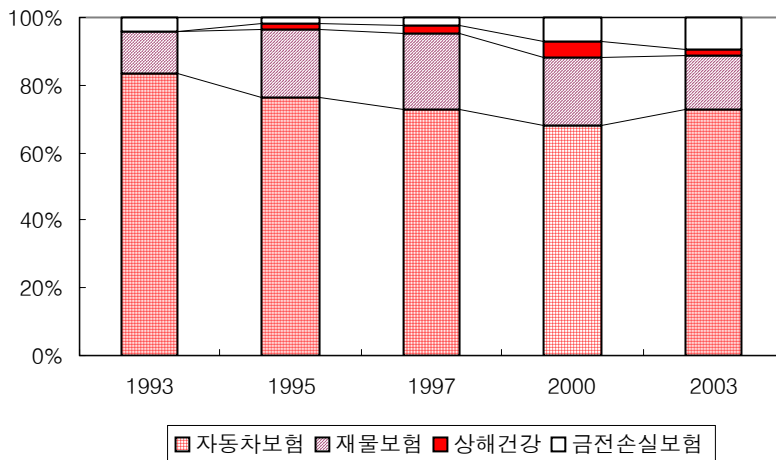
<표 5> 회사별 상품포트폴리오 구성비(2003년 보험료 기준)

종목별	온라인보험사			온라인(브랜드)겸용사		
	Direct L	Churchill	Esure	Norwick U	RSA	AXA
자동차보험	73%	58%	91%	37%	26%	21%
재물보험	16%	40%	5%	34%	46%	29%
상해건강	2%	0%	0%	13%	6%	35%
일반배상	0%	0%	0%	7%	14%	13%
금전손실보험	9%	2%	5%	9%	8%	2%
손해보험 전체 (개인보험)	100% (89%)	100% (98%)	100% (95%)	100% (48%)	100% (41%)	100% (35%)

자료 : Datamonitor, UK Personal General Insurance 2004/2005

- o Direct Line의 경우 온라인 초창기(90년대 초)에는 상품판매비중이 자동차보험 83%, 재물보험 13%, 금전손실보험 4%로 자동차보험 판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자동차보험 비중이 70%대로 낮아지고 기타 종목의 판매가 증가함.

<그림 5> Direct Line 상품별 구성비 추이



자료 : Datamonitor, UK Personal General Insurance 2004/2005

- 영국AXA의 경우 온라인 브랜드인 AXA Direct를 운영하다 온라인시장에서의 적응 실패로 2004년 온라인 시장에서 철수하고 온라인 직전 집중채널인 자사의 중개사 채널을 통한 개인보험사업을 재구축함.
- o AXA Direct의 경우 온라인시장 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높은 사업비율('03년 40.7%)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보시장 점유율 하락(99년 8.5%→2003년 3.3%)으로 손익 악화의 주요인으로 대두됨.
- o 이에 2004년 자사의 온라인채널(자보 및 재물보험)을 RAC(이후 Norwick Union에 인수)에 매각함.
- o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온라인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막대한 광고비 지출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채 사업비의 악화를 불러왔고, 둘째, 유수의 온라인사에 요구되는 온라인시장 특성에 부합한 마케팅 활동에 실패함.

4. 시사점

온라인 채널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비용 구조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우량물건 확보를 위한 마케팅, 리스크변동성 관리 및 언더라이팅 강화가 요구되며, 향후 금융지주 및 해외금융그룹의 온라인시장 진입에 따른 보험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온라인채널의 비용 경쟁우위를 활용한 저가격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고도의 차별화된 전략의 수행이 요구되지만 영국의 상황에서 볼 때 후발사 또는 겸용사의 경우 쉽지 않은 상황임.
- 온라인시장 참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고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막대한 광고비의 지출로 저사업비 구조를 어렵게 함.
- 전통채널에 지출되었던 모집수수료 대신 TM조직의 인건비, 우량물건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으로 대체되어 일반관리비의 상승을 가져옴.
- 대안으로 다량물건 확보를 위한 과도한 Outbound 영업지양, 수익성있는 계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Target Marketing)와 언더라이팅 능력 배양을 통한 손해율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양호한 손해실적을 바탕으로 재보 출제수수료 및 이익수수료의 증대, 광고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철저한 비용관리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 온라인보험사의 사업비중 광고비의 비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과대 광고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광고수단을 고객 특성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선택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온라인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제임.
- 국내 온라인보험사의 원수보험료 대비 광고비는 3.8%(2005년 기준)이나 Direct Line의 경우 경과보험료의 2% 수준임.
- 온라인보험사의 경우 채널 특성상 판매시너지가 높은 보험종목으로 상품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손해율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전략의 검토도 필요함.

- 영국의 온라인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판매비중이 50~90% 수준임.
- Direct Line의 경우 1994~2003년간 경험실적 분석 결과, 상품 다각화를 통해 전체적인 손해를 변동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은행 등 금융지주회사, 해외금융그룹이 향후 종합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써 비교적 설립 또는 인수가 용이한 온라인보험사를 자회사로 인수 또는 설립하여 보험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RBS그룹의 경우 온라인보험사인 Direct Line, Churchill 등을 인수하였으며, HBOS의 경우 Esure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운영하며 초기의 과감한 투자로 시장내 경쟁력을 확보함.
- 대부분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처럼 자체 온라인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여부 및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채널의 수익성 기여 평가가 필요함.

◆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시사점

최영목 부연구위원

1. 머리말

최근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위험관리 차원에서 고찰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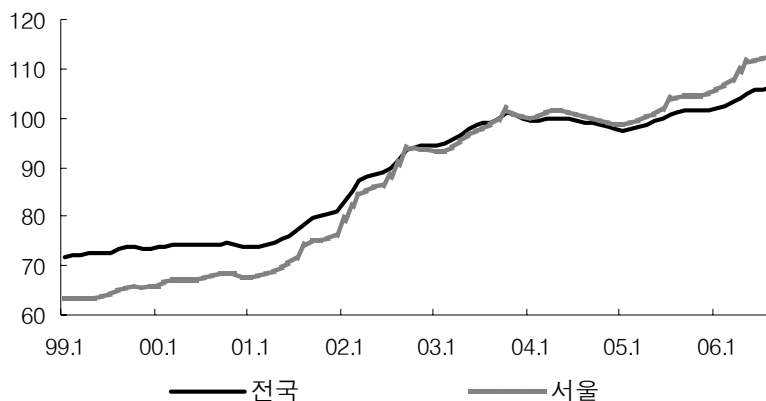
- 최근 들어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의 방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음.
 - 장기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보험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자산운용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활로가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권에서도 운용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부동산담보대출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뿐만 아니라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위험관리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부동산담보대출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기가 길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험관리 측면의 고찰이 필요함.
- 이에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을 다각도로 고찰함으로써 위험관리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국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및 연체율 추이를 파악하고 국내 일반은행 및 일본 보험회사와 비교분석함.
 - 그리고 자산운용 부문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운용자산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연체율도 낮아 위험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출금액은 적지 않은 상황임.

- 주택매매가격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음.
-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의 이자부담이 낮아져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주택매매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냄.
- 2005년 10.29대책, 2006년 3.30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매매가격이 다시 급등
- 전국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05년 1월에 각각 97.5와 98.5에서 2006년 8월에는 각각 106.1인과 112.6을 기록하여 서울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전국 및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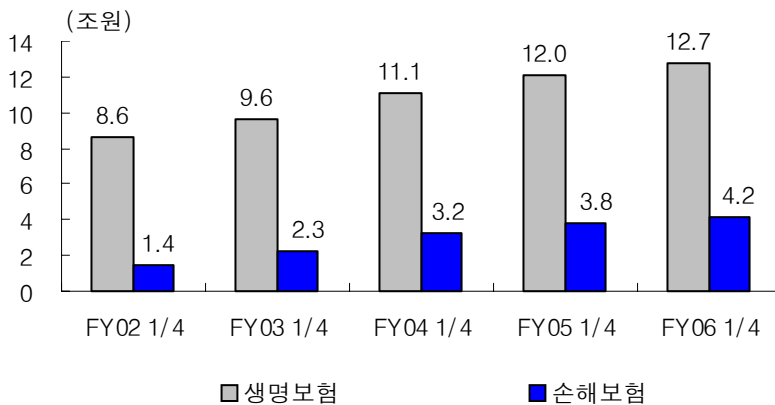
주 : 2003년 9월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지수임.
 자료 : 국민은행

□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국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자산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금액을 증가시켰으나 운용자산 대비 비율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음.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대형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FY06 1/4분기말에 생명보험회사는 12조 7천억원, 손해보험회사는 약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함.

- 이러한 금액은 보험회사의 전체 운용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이나 절대 규모는 높은 수준이므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 및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임.

<그림 2>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금액 추이



자료 :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호

○ 한국과 일본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을 비교하면 국내 보험회사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국내 보험회사도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보험회사의 자산 증가속도에 비해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속도가 다소 낮아 전체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약 6%와 10% 내외이며,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부동산담보대출의 활용도가 높음.

<표 1>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추이

(단위 : %)

		FY02	FY03	FY04	FY05	FY06 1/4
한 국	생명보험	6.4	6.6	6.5	6.0	5.9
	손해보험	6.7	9.1	10.2	9.6	9.7
일 본	생명보험	1.8	1.5	1.3	-	-
	손해보험	1.9	1.4	0.9	-	-

자료 : 국내 통계는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호.

일본 통계는 『Insurance』, 損害保險統計号 및 生命保險統計号의 각 연호에서 추출.

□ 보험회사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은 신용위험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연체금액의 규모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므로 위험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FY03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연체율은 각각 2.5%와 4.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여 FY06 1/4분기 말 현재 각각 2.4%와 2.8%를 나타내고 있음.

- 연체율은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다소 높으나, 약 2% 초반의 연체율이므로 현재는 신용위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FY06 1/4분기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연체금액은 각각 약 3천억원과 1천 2백억원에 달함.

- 이러한 연체금액은 작지 않으므로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표 2>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 및 연체금액 추이

(단위 : %, 억원)

		FY03	FY04	FY05	FY06 1/4
생명보험	연체율	2.5	2.4	2.3	2.4
	연체금액	2,727	2,955	2,883	3,021
손해보험	연체율	4.2	3.7	2.9	2.8
	연체금액	1,266	1,419	1,155	1,173
일반은행	연체율	1.7	1.9	1.2	1.2

주 : 일반은행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과거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들어 금리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적극 확대하였으나 1991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비율을 축소하고 있음.
- 1980년대 후반 들어 금리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자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증가시켰음.
-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권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FY92까지 투자수익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려갔으며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으로 무리한 대출을 하기도 함.

<표 3> 일본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80년대 후반~90년대 초)

(단위: %)

	FY87	FY88	FY89	FY90	FY91	FY92	FY93
생명보험	0.3	5.7	12.5	11.3	12.5	8.5	1.6
손해보험	18.2	19.5	11.5	9.4	10.7	8.7	0.0
전 체	1.9	7.1	12.4	11.1	12.3	8.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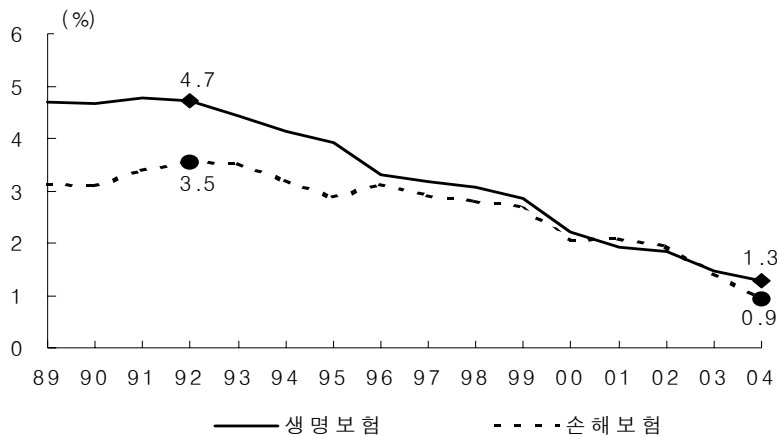
자료 : 『Insurance』, 損害保險統計号 및 生命保險統計号의 각 연호

- 부동산가격은 1980년대 후반 들어 급등세를 보였으나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는 등 경제정책을 긴축기조로 선회하자 1991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폭락하였고,

이후 보험회사들은 현재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각각 FY92에 전체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각각 4.7%와 3.5%였으나 FY04 현재에는 각각 1.3%와 0.9%로 비중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음.

<그림 3> 일본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주 : 각 연도별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임

자료 : 『Insurance』, 損害保険統計号 및 生命保険統計号의 각 연호

3. 시사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성격상 부동산담보대출은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향후 부동산 가격 추이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비중을 결정함으로써 위험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절대금액의 수준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전체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감소추세이며 연체율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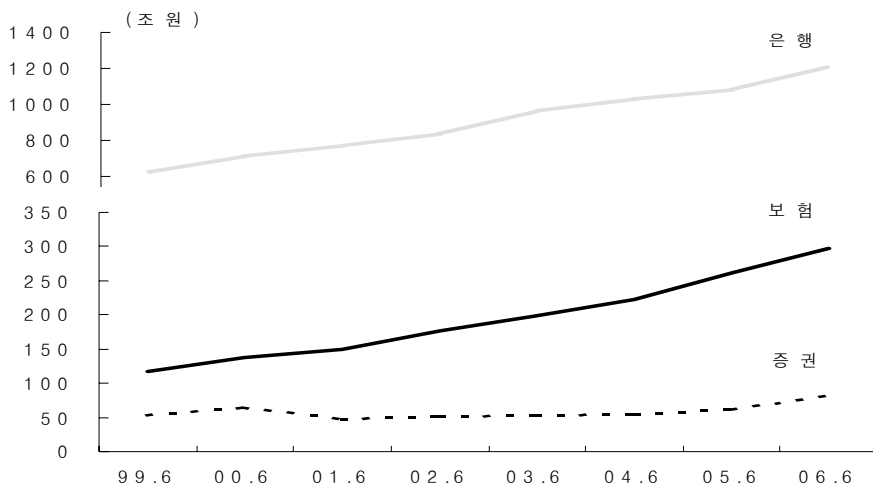
- 그러나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부동산담보대출에 신용위험을 크게 노출시키기보다는 사전적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위험의 성격이 다른 자산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높은 수익을 올렸으나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들은 이차역마진의 상황에서 투자수익 제고를 위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대폭 증가시켰으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자산은 급격하게 환경이 변할 경우에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수익성과 함께 장기적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투자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함.
- 결국, 보험회사의 전체 운용자산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수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사전적인 위험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측정하여 전체 운용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의 추이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담보인정비율 및 대출비중을 결정하여 사전적인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산업 개관

보험회사의 자산증가율은 타 금융권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계정자산에서 10% 이상의 지속적인 증가세 실현과 최근 변액보험을 포함한 특별계정자산의 높은 증가세가 가세하여 달성한 기록임.

-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6년 6월 말 현재 총자산이 약 297조원을 기록하면서 7월 잠정치로는 300조원을 돌파함.
- 동 기간 동안 은행의 총자산은 1.9배 성장한 1,209.7조원, 증권사의 총자산은 1.6배 성장한 81.8조원을 기록하는 데 그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한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999년 6월말 약 118조원이었으며 이후 7년 동안 2.5배 성장하여 2006년 6월말 현재 297조원을 기록함.
-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999년 6월말 은행 자산의 18.9%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6월말 현재 24.6%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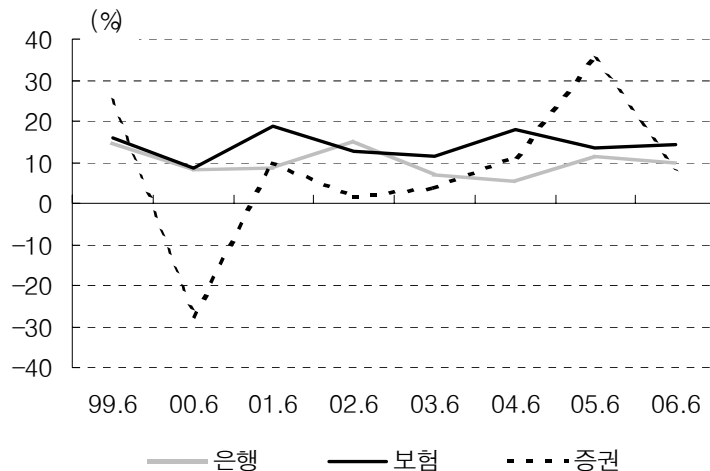
<그림 1> 은행, 보험, 증권 of 자산규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증권사의 연간 자산증가율은 부침이 심한 반면 보험회사와 은행의 자산증가율은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자산증가율이 연평균 10% 중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보험회사의 연간 자산증가율은 10%를 상회하면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7년 동안 평균 자산증가율은 14.2%를 기록함.
- 은행의 자산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7년 동안 평균 자산증가율은 보험회사에 비해 다소 낮은 10.0%를 기록함.
- 이와 달리 증권사의 자산증가율은 연도마다 부침이 심한 가운데 최근 7년간 평균 자산증가율은 8.4%를 기록함.

<그림 2> 은행, 보험, 증권사의 연도별 자산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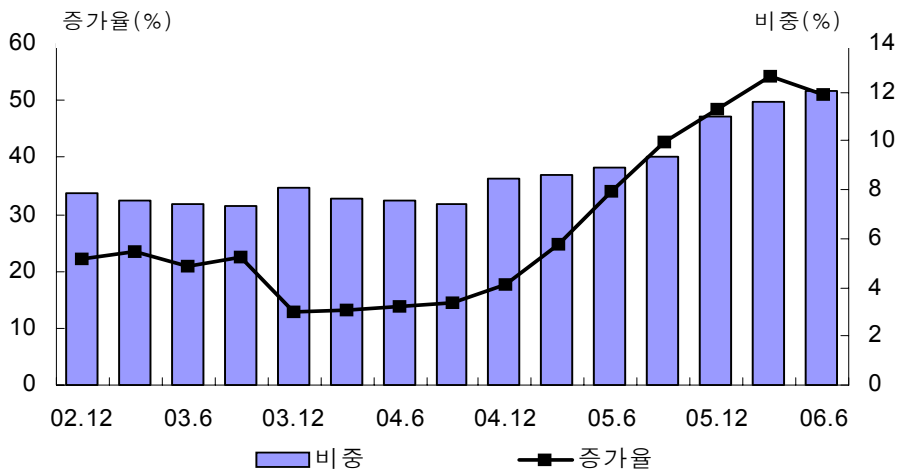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최근 보험회사 자산의 성장은 비중이 큰 일반계정자산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10%를 상회하는 가운데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과 같은 특별계정자산의 높은 성장이 가세하여 이루어짐.
- FY2002 1/4분기부터 FY2006 1/4분기까지 일반계정자산의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 성장률은 11.1%를 기록함.

- 아직은 특별계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나, 동 기간 동안 특별계정자산의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평균 성장률은 27.7%를 기록함으로써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증가를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함.
- 특별계정자산 중에서도 성장 공헌도가 높은 종목은 변액보험이며 변액보험자산의 동 기간 동안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평균 성장률은 270.2%에 달함.
- 이에 따라 특별계정자산의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은 FY04 2/4분기에 7.4%에서 FY06 1/4분기에는 12%로 증가하였음.

<그림 3> 보험회사 특별계정자산의 증가율 및 전체자산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6년 2/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반면,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유로지역이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달러화가 약세를 시현.

- 2006년 2/4분기에 중국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감.
- 미국 경제는 2006년 1/4분기에 전기비연율로 5.6% 성장하였으나 2/4분기에는 개인소비와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설비투자 부진에 기인하여 성장률이 2.9%로 하락하였고,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압력이 증대됨.
 - 중국 경제는 올 해 1/4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수출 호조와 투자의 신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4분기에는 12년래 최고치인 전년동기대비 11.3%의 성장률을 기록.
 - 일본은 2/4분기에 광공업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매판매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출증가율도 다소 하락함에 따라 전기대비 1.0%(연율) 성장하는 데 그침.
 - 유로지역의 경제는 5월 들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2/4분기에는 전기비로 0.9%가 성장하여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6월 들어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면서 성장둔화가 우려됨.

<표 1> 주요국 GDP성장을 추이

(단위: %)

	2005				2006	
	2/4	3/4	4/4	연간	1/4	2/4
미 국	3.3	4.2	1.8	3.2	5.6	2.9
일 본	5.5	1.8	4.0	2.6	3.3	1.0
중 국	10.1	9.8	9.9	9.9	10.3	11.3
유 로	0.4	0.6	0.3	1.4	0.8	0.9

주 : 중국은 동기대비, 유로는 전기비, 그 외 전기비연율.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6. 9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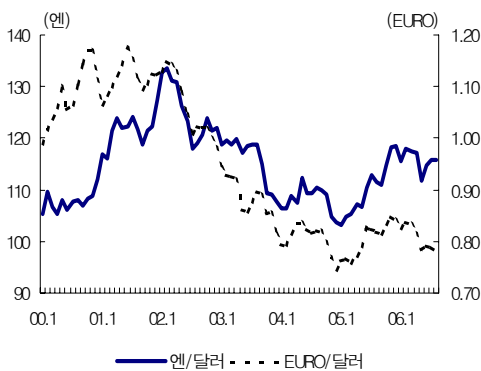
(단위: %)

	2005			2006	
	2/4	3/4	4/4	1/4	2/4
개인소비지출 ¹	3.3	4.2	1.8	5.6	2.9
기업고정투자 ¹	5.5	1.8	4.0	3.3	1.0
산업생산 ²	10.1	9.8	9.9	10.3	11.3
소매판매 ²	0.4	0.6	0.3	0.8	0.9

주 : 1은 전기비 연율, 2는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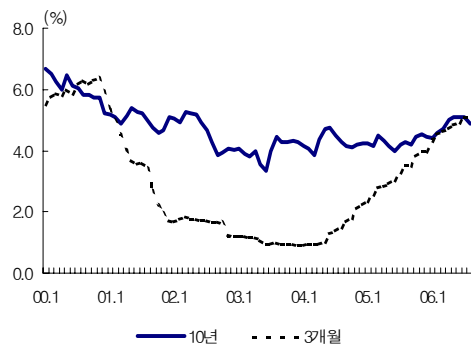
- 2006년 2/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5월 이후 지속적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약세 시현.
 - 미국의 2/4분기 성장둔화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8월에는 재무성증권의 3개월 만기 금리(5.09%)가 10년 만기 국채금리(4.88%)를 추월하면서 장단기금리가 역전.
 - 미 달러화는 2/4분기 미국 경제의 둔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시현하였고 일본 경제의 회복세 둔화에 따라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로 전환.
 - 올 해 2월 달러당 0.837유로에서 8월에는 0.781유로로 하락하였고 115.8, 엔화는 5월에 달러당 111.7엔까지 하락한 이후 8월에는 115.8로 상승.
- 미국의 주식시장은 2006년 2/4분기 중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유가상승 등에 따라 하락하였으나 8월 들어 기업실적 호조가 가시화됨에 따라 회복세 시현.
 - 미국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월에 11,367이었으나, 이후 경기둔화 전망 및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6월에는 11,150으로 하락
 - 8월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기업실적이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1,381로 회복.

<그림 1> 국제환율 추이



주 : 기간 평균 환율임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2>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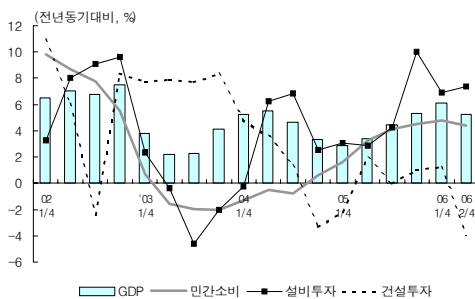
주 : 기간 평균 금리임
자료 : FRB St. Luise

2. 국내 경제

2/4분기에 GDP는 동기대비 5.3% 성장하였으나 전기대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국고채(3년) 금리는 5% 이하로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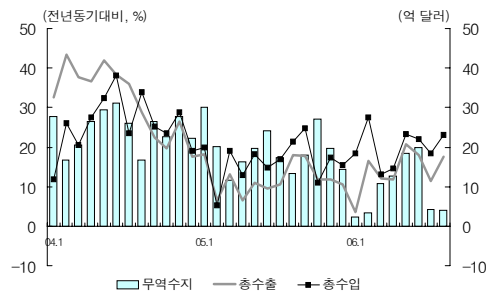
- 2006년 2/4분기 중 GDP는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의 성장세 유지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1/4분기 대비 성장률(0.8%)은 하락세로 전환
-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기계설비 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7.4% 증가(전기대비 2.5%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 투자가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3.9% 감소(전기대비 3.9% 감소)함.
- 또한 2/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재화에 대한 지출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4% 증가(전기대비 0.9% 증가)함.
- 2006년 2/4분기에 무역수지는 고유가 지속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년동기대비 9억 달러 감소한 51억달러를 기록
- 2/4분기에 수출은 주력 수출품목군인 중화학공업품에서 정밀기기와 기계류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15억달러를 기록
- 수입은 고유가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19.9% 증가한 764억달러를 기록

<그림 3>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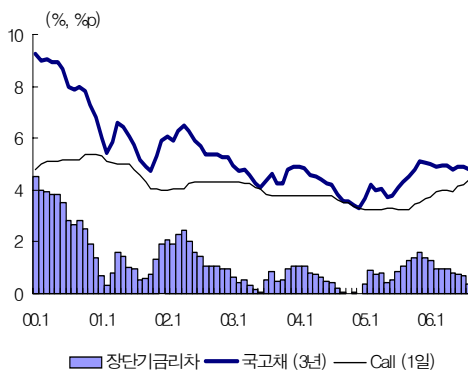
<그림 4>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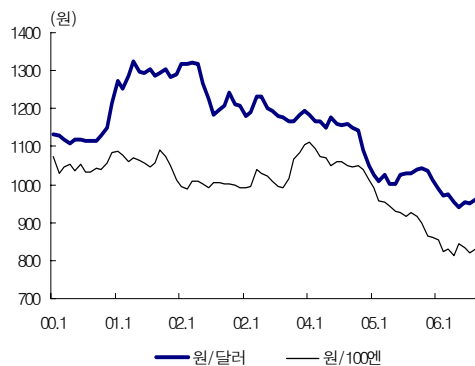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를 6월과 8월에 상향조정하였으나,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8월 들어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됨.
-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를 5월까지 연 4%로 유지하였으며 6월에는 4.25%로 상향조정하였고 8월에 다시 4.5%로 상향조정하였음.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1월 중 평균 5.02%였으나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2/4분기 들어 국내 경기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8월 중에는 평균 4.77%로 하락
- 2/4분기에도 원/달러 및 원/엔 환율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화의 평가절상 추세에 있으며, 올 해 들어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사이의 상관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냄.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심리의 확산으로 6월말 948.8원을 기록하여 1/4분기말 대비 22.7원이 하락하여 원화가치가 2.4% 상승함.
- 원/엔(100엔당) 환율은 6월말 828.5원을 기록하여 1/4분기말 수준보다 소폭 상승하여 원화가치는 0.1% 하락하는데 그쳤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원/엔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하세를 나타냄으로써 원화가치의 상승 추세에 있음.

<그림 5>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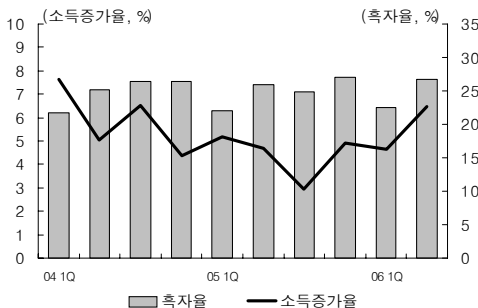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5월 이후 소비자대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한 가운데, 보험권으로의 자금유입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9조 4천억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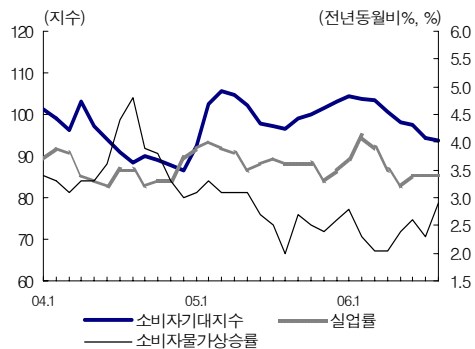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는 악화되고 있으나, 2/4분기에 실업률은 안정세를 지속하였고,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소비자대지수는 5월에 100이하로 악화된 이후 8월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100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연령층에서 100을 상회하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100이하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 상승에 머물렀으나 고유가의 파급 영향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8월에는 2.9%까지 상승하였으며, 계절 조정후 실업률은 3.5% 전후를 유지
- 2006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1만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실질기준 4.0%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768.1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흑자율은 26.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0.7%p 증가함.

<그림 7> 도시가계 소득, 흑자율



주 : 흑자율 = 1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그림 8>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 2006년 2/4분기(FY2006 1/4분기)중 은행 수신은 대폭 증가, 투신권은 MMF를 중심으로 수신이 크게 감소,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환매조건부채권의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은행수신의 경우 4월 중 MMDA와 CD 등의 감소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으나, 5월과 6월에는 고금리 특판에 힘입어 정기예금이 대폭 늘어났으며 MMDA도 MMF에서 이탈한 자금의 유입으로 크게 증가함.
- 투신권의 경우 4월에 MMF와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크게 빠져나감으로써 2/4분기 중 순수신이 감소하였으나 5월과 6월 들어 단기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MMF를 중심으로 수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증권사의 경우 5월과 6월 중 주식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고객예탁금 유입은 주춤하였으나 여전히 종합주가지수가 1300포인트를 전후로 강보합세를 나타내어 꾸준히 수신이 이어지고,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2/4분기 중 순수신은 약 1조8천억원을 넘어섬.
-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의 변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CY06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2조2천억원(약 32%)의 순수신이 증가한 9조4천억원을 기록함.

<표 3>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CY2006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71,449	94,002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생명보험	54,862	75,500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손해보험	16,587	18,502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은 행	-1,871	-28,410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일반계정	19,734	-13,394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신탁계정	-21,605	-15,016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증 권	-1,427	-11,172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투 신	136,801	148,323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총 금	940	-18,256	19,416	2,048	-10,616	40,443	5,651	31,812

주 :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6 1/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두드러진 실적 호조를 나타냄.

- FY2006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4.2% 성장함.
- 생명보험은 생존보험이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변액보험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4.8%의 견조한 성장을 보임.
-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이 두드러진 실적호조를 나타내면서 전체 원수보험료의 성장세를 견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3.1%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1.4	6.7	13.0	11.7	12.8	20.0	14.4	14.8
손해보험	57,171	232,173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8.1	8.6	9.8	8.8	11.6	12.8	10.8	13.1
합 계	191,062	769,679	198,169	203,600	245,061	225,126	871,957	226,395
	10.4	7.2	12.0	10.8	12.4	17.8	13.3	14.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6 1/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2.8%, 손해보험이 3.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2.9% 증가함.

- FY2006 1/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2.9% 증가한 296조 9,531억원을 기록하여 보험회사의 총자산이 2분기내에 300조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됨.
- 생명보험 총자산은 2.8% 증가한 246조 73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수입보험료가 견실한 성장을 하고 특별계정 자산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 손해보험 총자산은 50조 880억원으로 장기손해보험 중심의 보험영업실적 개선과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전분기대비 2.9% 증가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2,460,733
	0.8	12.9	2.6	3.2	4.8	2.0	13.1	2.8
손해보험	434,720	434,720	450,522	466,126	488,995	492,774	492,774	508,801
	1.9	15.0	3.6	3.5	4.9	0.7	13.4	3.3
합계	2,550,818	2,550,818	2,621,234	2,706,437	2,836,657	2,886,393	2,886,393	2,969,534
	1.0	12.8	2.8	3.3	4.8	1.8	13.2	2.9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동향분석됨)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6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8% 성장한 15조 7,136 억원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
 - 변액보험이 전년동기대비 127.2% 성장하는 데 힘입어 전체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14.9% 성장하였음.
 - 단체보험의 경우 성장을 주도한 퇴직보험의 성장세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25.9%p 감소한 13.6%를 기록함.
- FY2006 1/4분기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8% 증가한 246조 733억원을 기록함.
 - 총자산은 총수지 증가, 준비금전입액 확대, 그리고 특히 최근 특별계정자산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 자 산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2,460,733
	0.8	12.9	2.6	3.2	4.8	2.0	13.1	2.8
수입보험료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1.4	6.7	13.0	11.7	12.8	20.0	14.4	14.8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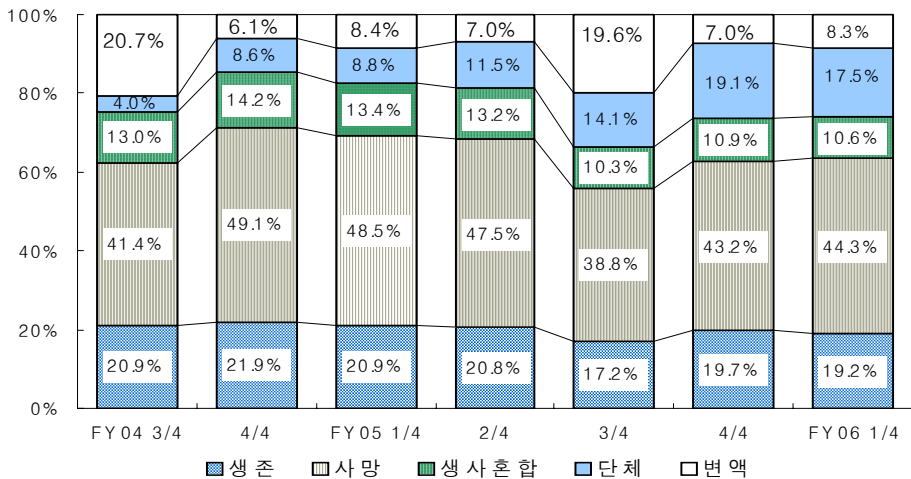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6 1/4분기 종목별 구성 비중은 사망보험 44.3%, 생존보험 19.2%, 변액보험 17.5% 그리고 생사혼합보험이 10.6%의 순이었으며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외에는 전년동기대비 비중이 모두 축소됨.

- 변액보험은 지속적인 비중확대를 해왔으나 금리인상 및 주가하락에 따라 펀드시장의 불안으로 변액보험의 비중이 전분기 대비 축소됨.
- 사망보험(일반계정)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서는 1.2%p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에 비해서는 4.1%p 감소한 44.3%를 보여 감소세를 나타냄.
- 생존보험은 FY2005 3/4분기 이후부터 구성비가 20%를 하회하는 추세를 이어갔으며, 생사혼합보험 또한 지난동기대비 감소되어 10%대로 축소됨.
- 일반계정 중 무배당보험 구성비는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한 87.7%였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1.9%p 증가한 46.1%를 차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특별계정 변액보험 중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비중이 48%로 제일 높지만 변액연금의 비중이 10.1%p나 큰 폭 증가해 44.7% 차지했음.

- FY2006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14조 4,041억원이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13.6% 증가한 1조 3,095억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사망보험은 성장둔화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2.4%p 감소한 4.9% 증가에 그쳤으며 수입보험료는 6조 9,685억원을 기록함.
 - 이는 장기건강보험(26.3%)과 질병보험(9.0%)의 성장이 양호하였으나 사망보험중 규모가 큰 종신보험성장이 0.4%에 그친데 기인함.
 - 일반계정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조 188억원으로 5.6% 성장하였으며, 이는 지난동기대비 4.4%p 감소한 것임.
 - 생존보험은 지난 분기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하였으나 저축성 상품에 대한 성장이 저하되면서 성장세가 동반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9% 감소한 1조 6,689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특별계정 변액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 194.0%, 변액유니버설보험이 110.5%의 큰 폭의 성장을 한 반면 변액종신보험이 0.3%증가에 그침.
-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전체에서의 구성비는 0.1%p 감소한 8.3%를 나타냄.
 - 퇴직보험 판매가 중단되었으나 퇴직보험 보험료는 21.2%의 견조한 증가를 이루어 전체 성장을 이끈 반면 퇴직연금은 188억원이 거수되어 퇴직보험의 1.9%수준에 불과함.
 - 일반단체보험은 전년대비 9.0%가 줄어들어 감소세가 지속됨.
- 상품별로는 일반계정 변액보험이 286.9% 증가해 특별계정 변액보험보다 증가율이 높았으며, 장기건강보험도 26.3%의 큰 폭 증가율을 보였음
 - 질병보험도 9.0%의 성장을 하면서 규모 면에서 종신보험에 육박했으며, 반면 종신보험은 0.4% 성장에 그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29,385	121,366	28,600	29,441	30,125	31,722	119,887	30,188
	성장률	4.2	4.9	1.2	-5.6	-7.4	8.0	-1.2	5.6
	구성비	21.9	22.6	20.9	20.8	17.2	19.7	19.5	19.2
사망	보험료	65,798	255,338	66,402	67,289	68,182	69,342	271,215	69,685
	성장률	9.6	11.3	7.4	6.5	5.7	5.4	6.2	4.9
	구성비	49.1	47.5	48.5	47.5	38.8	43.2	44.1	44.3
생사 혼합	보험료	19,076	79,646	18,312	18,700	18,070	17,514	72,596	16,689
	성장률	-13.0	-15.7	-8.6	-7.7	-10.9	-8.2	-8.9	-8.9
	구성비	14.2	14.8	13.4	13.2	10.3	10.9	11.8	10.6
변액 보험	보험료	11,456	23,789	12,093	16,215	24,761	30,752	83,822	27,479
	성장률	386.3	212.2	334.3	392.4	295.8	168.4	252.4	127.2
	구성비	8.6	4.4	8.8	11.5	14.1	19.1	13.6	17.5
개인 계	보험료	125,714	480,140	125,408	131,646	141,137	149,330	547,521	144,041
	성장률	11.7	7.4	11.1	11.6	14.2	18.8	14.0	14.9
	구성비	93.9	89.3	91.6	93.0	80.4	93.0	89.1	91.7
단체	보험료	8,177	57,366	11,526	9,891	34,486	11,298	67,201	13,095
	성장률	5.8	1.1	39.5	12.8	7.2	38.2	17.1	13.6
	구성비	6.1	10.7	8.4	7.0	19.6	7.0	10.9	8.3
합계	보험료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성장률	11.3	6.7	13.0	11.7	12.8	20.0	14.4	14.8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또는 전년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1/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사의 경우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모두 지속적 축소세가 이어진 반면 대형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비중은 증가함.
- 상위 3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점유율이 63.6%로 전년동기보다 4.1%p나 하락한 반면 외국사를 선두로 한 중소형사의 비중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허핀달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판매비중은 외국사가 43.5%, 대형사가 36.9%, 국내중소형사가 25.9%로 외국사의 변액보험판매 성과가 두드러짐.
 - 변액보험의 판매채널도 외국사는 설계사 47.8%, 방카슈랑스 45.3%로 다양한 채널을 구사하여 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대형사는 설계사 86.6%, 방카슈랑스 7.4%로 편중되어 있음.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개사	67.7	68.5	67.1	65.3	66.9	64.3	65.9	63.6
외 국 사	17.7	16.5	18.0	18.6	16.8	20.1	18.3	20.1
국내중소형사	14.6	15.0	15.0	16.1	16.2	15.6	15.8	16.3
허핀달지수	0.1823	0.1848	0.1833	0.1731	0.1778	0.1632	0.1739	0.1614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6년 3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6 1/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가 증가한 반면 기타수지는 축소되고 준비금전입액 확대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49.6% 감소한 3,433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보험영업수익이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비용은 0.7% 증가에 그치면서 10.8% 확대됨.
- 투자영업수지도 투자영업수익이 7.9% 증가하였으나, 투자영업비용이 1.1% 소폭 감소하면서 10.0% 증가함.
- 준비금전입액은 일반계정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0.1% 확대되었음.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1/4
총수익	보험영업	492,808	121,728	245,944	371,024	500,499	125,079
	투자영업	129,822	29,363	60,610	91,883	125,203	31,688
	기타	5,548	14,412	6,575	6,576	10,080	3,054
	소계	628,178	165,502	313,129	469,484	635,782	159,821
총비용	보험영업	391,414	96,807	199,745	317,595	428,830	97,465
	투자영업	22,410	5,413	11,621	17,221	22,803	5,351
	기타비용	20,123	12,680	3,814	4,129	5,830	1,605
	소계	433,946	114,900	215,181	338,945	457,463	104,421
수지차	보험영업	101,395	24,921	46,199	53,429	71,669	27,614
	투자영업	107,412	23,950	48,989	74,662	102,400	26,337
	기타	-14,575	1,732	2,761	2,448	4,250	1,449
	소계	194,232	50,603	97,948	130,539	178,319	55,400
준비금전입		167,578	42,154	83,547	111,892	151,083	50,636
법인세		5,602	1,644	3,014	4,170	6,264	1,330
당기순이익		21,051	6,805	11,388	14,477	20,972	3,433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6 1/4분기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5.9%p 감소한 52.7%로 개선되었으며, 사업비율도 1.2%p 소폭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 보험금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25.2%p 감소하고 생존보험도 1.7%p 감소했으나 사망보험은 3.0%p 증가함.
 - 변액보험 보험금지급률이 7.1%p 증가한 12.1%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임.
 - 신계약률은 전년동기대비 같은 수준인 5.5%로 나타났으며, 해약률은 0.1%p 소폭 감소한 3.1%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지급률	68.4	58.8	58.6	57.6	56.9	58.6	57.9	52.7
생 존	74.2	58.6	62.5	63.0	70.0	70.4	66.6	60.8
사 망	37.8	35.5	34.2	36.2	36.4	39.4	36.6	37.2
생사혼합	145.6	128.5	133.5	138.1	199.2	133.2	151.0	108.3
변 액	12.8	12.2	4.9	5.2	6.1	8.0	6.5	12.1
개 인 계	60.4	57.0	52.3	52.8	59.1	50.5	59.9	45.6
사 업 비 율	24.6	19.2	19.0	18.6	16.3	18.0	17.9	17.8
신 계 약 률	27.3	27.3	5.5	12.4	19.1	28.0	28.0	5.5
해 약 률	14.2	14.2	3.2	6.1	8.8	11.9	11.9	3.1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은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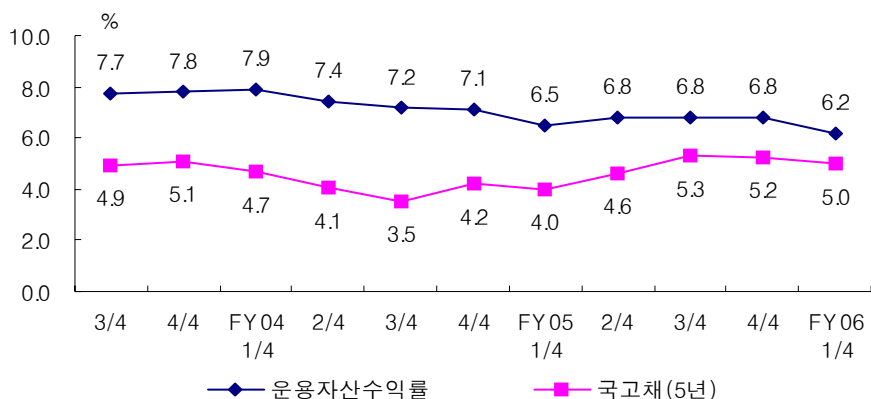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6 1/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6.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가장 비중이 큰 채권운용수익률이 하락한데 기인함.
- 투자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의 채권부문 운용수익률이 전분기 대비 1.2%p가 하락한 5.3%에 그침
- 다음으로 투자비중이 큰 대출채권에서도 전분기대비 0.5%p가 감소한 9.1%의 성과를 달성함.
- 그 외에 특별계정자산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전분기대비 2.4%p 감소한 4.7%의 저조한 성과를 기록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6 1/4분기 자산운용률은 전년동기대비 3.2%p 감소한 87.7%를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의 수익률은 5.8%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함.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1.9	3.6	2.2	3.5	2.2	3.8	2.0	4.0	2.4	3.9
유 가 증 권	58.5	5.8	59.0	6.1	59.0	6.0	59.4	6.1	59.2	5.4
○ 단기매매증권	3.0	6.8	3.2	9.5	2.9	10.9	2.9	9.5	2.3	5.7
- 주 식	0.2	27.1	0.3	63.9	0.1	110.4	0.1	93.9	0.1	12.0
- 채권 등	1.9	6.1	1.9	5.2	1.7	6.2	1.6	6.9	1.5	5.7
- 수익증권	0.9	4.1	1.0	6.5	1.0	7.3	1.2	5.4	0.7	4.9
○ 매도가능증권	47.4	5.7	47.5	5.9	47.9	5.7	46.2	6.0	46.3	5.2
- 주 식	3.9	2.0	4.6	3.3	5.1	2.7	5.1	4.0	4.8	3.7
- 채권 등	40.8	6.2	40.0	6.5	39.3	6.3	37.7	6.5	38.3	5.3
- 수익증권	2.8	3.0	2.9	2.4	3.4	1.9	3.4	3.4	3.2	6.8
○ 만기보유증권	7.3	5.8	7.6	5.8	7.4	6.2	9.5	5.3	9.8	5.8
- 채권 등	7.3	5.8	7.6	5.8	7.4	6.2	9.5	5.3	9.8	5.8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4.8	0.8	5.5	0.8	5.9	0.8	4.7	0.7	6.4
대 출 채 권	22.7	9.3	22.6	9.3	22.6	9.4	22.5	9.6	22.2	9.1
부 동 산	4.5	3.7	4.5	3.8	4.4	4.3	4.4	4.3	4.3	3.7
운 용 자 산 계	87.7	6.5	88.4	6.8	88.2	6.8	88.2	6.8	88.0	6.2
비 운 용 자 산	12.3	3.0	11.6	2.4	11.8	2.8	11.8	3.2	12.0	4.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0.9)	6.1	100.0 (90.4)	6.2	100.0 (88.7)	6.3	100.0 (88.1)	6.4	100.0 (87.7)	6.0
특 별 계 정 자 산	10.0	4.5	10.6	5.5	12.8	6.6	11.9	7.1	12.3	4.7
총 자 산	100.0	6.0	100.0	6.2	100.0	6.3	100.0	6.5	100.0	5.8
총 자 산 규 모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460,733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6 1/4분기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임직원과 설계사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와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감소함.

- 임직원판매비중의 경우 퇴직보험의 판매비중이 소폭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함.
- 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5.8%p 증가했으며 이는 설계사에 의한 변액보험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5%p 감소한 27.7%로 이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팔리는 저축성보험의 성장이 감소하고 변액보험의 설계사판매가 증가한 데 기인함.
- 대리점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6.9%이나 전분기대비로는 1.0% 축소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 직 원	8.5	16.5	23.5	21.5	27.8	13.8	21.4	21.9
설 계 사	49.6	38.2	37.7	39.4	44.2	52.1	44.5	43.5
대 리 점	8.9	7.2	6.6	6.0	6.3	7.9	6.8	6.9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T/M	0.3	0.3	-	-	-	-	-	-
C/M	0.0	0.0	-	-	-	-	-	-
방카슈랑스	32.6	37.8	32.2	33.2	21.7	26.2	27.3	27.7
기 타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569	66,853	15,713	19,375	28,854	28,827	92,770	20,689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6 1/4분기말 생명보험 산업의 임직원 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고 대리점도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설계사 수는 모처럼 증가세로 반전됨.
- 설계사 수는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했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1.4%)되었으며 회사별로는 거의 외국사들만 설계사를 증원했고 대형사들은 남성설계사를 늘리는 추세를 보임.
 - 임직원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3.1% 소폭 상승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증가에 그친 반면, 대리점은 64.5%p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대형사와 국내중소형사들이 주도한 것임.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임 직 원	25,276	25,688	25,807	26,033	26,051
설 계 사	134,172	129,647	124,494	123,850	125,542
대 리 점	6,572	7,238	9,391	10,290	10,812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소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급성장, 일반 손해보험 전반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6조 9,259억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은 두드러진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 보증, 특종보험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7.5%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자동차보험은 전년도 손해를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5.7%의 성장률을 시현함.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50조 8,80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성장하였음.

○ 손해보험시장의 전반적인 판매 확대에 따른 원수보험료 성장 및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것임.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9.8	8.8	11.6	12.8	10.8	13.1
총자산	450,522	466,126	488,995	492,774	492,774	508,801
	3.6	3.5	4.9	0.7	13.4	3.3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가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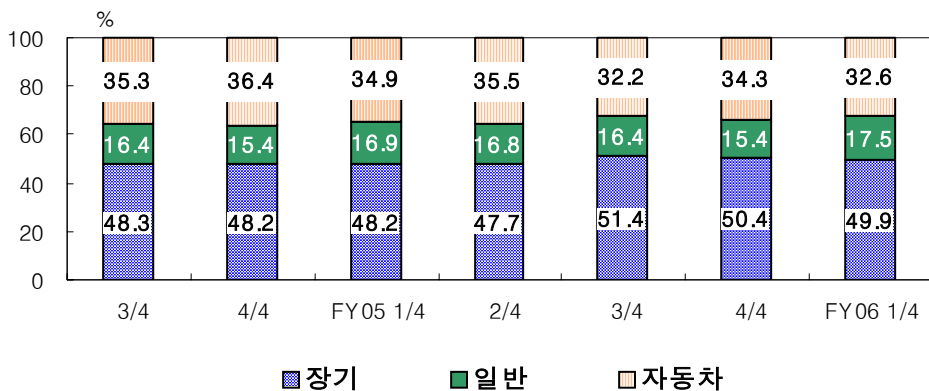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49.9%, 자동차보험 32.6%, 일반손해보험 17.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높은 원수보험료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점유율이 각각 1.7%p, 0.6%p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은 2.3%p 감소함.
- 일반손해보험의 부분별 점유율에서는 해상보험이 0.7%p, 보증보험이 0.6%p 증가,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은 각각 0.2%p, 0.5%p 감소하였음.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6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2,5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성장하였음.

- 온라인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폭 성장하였음.
-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신규 진출(2006년 4월) 및 온라인 채널에 의한 판매 확대 등으로 FY2006 1/4분기 14.4%의 점유율로 증가 추세

를 나타내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 및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19.3% 성장한 3조 1,564억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상해와 저축 부문에서 각각 32.4%, 22.9%가 증가하였으며, 통합형부문에서는 16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전체 초회보험료는 22.2%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상해와 저축성이 각각 41.2%, 30.6%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질병은 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6 1/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2,10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해상보험은 적하보험의 경우 요율 인하 적용으로 -7.2% 성장을 나타낸 반면, 선박보험 30.1%, 항공보험 199.1% 등 급성장세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한 756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은 2005년 5월 참조위험률 인상효과가 완화되고 FY2006부터는 주택, 일반, 공장물건의 보험요율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FY2006 1/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143억원으로 6.9%의 성장을 기록함.
 - 특종보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4% 성장하였으며, 상해보험 44.0%, 기술보험 7.4%의 성장률을 보임.
 - 반면, 책임보험은 근재보험 등의 요율인하로 인해 -10.8%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음.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94	751	913	785	3,243	756
	성장률	4.1	13.2	10.7	14.6	10.4	-4.8
	구성비	1.3	1.2	1.3	1.2	1.3	1.1
해 상	보험료	1,399	1,412	1,280	1,186	5,277	2,101
	성장률	10.7	0.2	1.3	4.4	4.1	50.2
	구성비	2.3	2.3	1.8	1.8	2.1	3.0
자동차	보험료	21,386	22,062	22,342	22,100	87,890	22,598
	성장률	2.6	2.5	1.6	6.1	3.1	5.7
	구성비	34.9	35.5	32.2	34.3	34.2	32.6
보 증	보험료	2,255	2,391	2,791	2,630	10,067	2,972
	성장률	-4.2	9.7	25.8	15.9	11.6	31.8
	구성비	3.7	3.9	4.0	4.1	3.9	4.3
특 종	보험료	5,745	5,744	6,263	5,152	22,904	6,143
	성장률	13.0	12.9	10.1	14.3	12.4	6.9
	구성비	9.4	9.3	9.0	8.0	8.9	8.9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29	143	164	173	609	156
	성장률	-37.8	-33.0	-13.0	-7.1	-23.5	20.9
	구성비	0.2	0.2	0.2	0.3	0.2	0.2
장 기	보험료	26,459	27,435	28,736	29,932	112,562	31,564
	성장률	16.1	16.5	16.3	18.3	16.8	19.3
	구성비	43.2	44.2	41.4	46.4	43.8	45.6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4	1,715	1,788	1,789	6,976	1,836
	성장률	-3.5	2.1	5.5	6.5	2.6	9.0
	구성비	2.8	2.8	2.6	2.8	2.7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1,383	410	5,162	752	7,707	1,133
	성장률	101.8	-42.7	41.7	29.8	37.1	-18.1
	구성비	2.3	0.7	7.4	1.2	3.0	1.6
계	보험료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성장률	9.8	8.8	11.6	12.8	10.8	13.1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와 일반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전업사와 외국사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70.7%로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하였으며, 일반 중소형사의 경우 0.7%p 감소한 94.3%를 나타내었고, 온라인 단종보험사는 현대하이카의 신규시장 진입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2.5%를 기록함.
 - 전업사 및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6%p, 0.1%p 증가한 4.4%, 1.3%의 점유율을 나타냄.
 - 허핀달지수는 FY2006 1/4분기 0.1519로 낮은 시장집중도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점유비	상위4개사	71.8	71.6	71.4	71.3	71.3	70.7
	일반사 계	95.0	94.9	94.7	94.8	94.8	94.3
	전 업 사	3.8	3.8	4.0	4.0	4.0	4.4
	외 국 사	1.2	1.3	1.3	1.2	1.2	1.3
허 핀 달 지 수		0.1583	0.1581	0.1567	0.1557	0.1557	0.1519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금리인상 등 자산운용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투자영업 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전년동기대비 32.7% 감소한 2,532억원을 나타냄.
-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영업실적 호조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한 6,497억원을 나타내었으나, 손해율 상승 및 장기손해보험 IBNR 적립률 상향 조정 등으로 보험영업비용이 16.3% 가량 증가함에 따라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함.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2,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1,126억원으로 감소하여 일반 손해보험사들의 손익상황이 악화되었음.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208,597	55,353	112,337	171,114	231,078	62,032
	투자영업	25,320	5,444	12,166	19,477	26,358	6,497
	기 타	7,632	2,009	3,209	7,984	9,270	4,352
	계	241,549	62,805	127,712	198,574	266,706	72,880
총 비 용	보험영업	212,285	54,480	111,893	172,776	236,258	63,356
	투자영업	5,841	1,385	2,720	4,115	5,479	1,795
	기 타	9,706	2,376	3,412	8,733	10,251	4,193
	계	227,833	58,241	118,024	185,624	251,988	69,344
수 지 차	보험영업	-3,689	872	444	-1,662	-5,180	-1,324
	투자영업	19,479	4,059	9,446	15,361	20,879	4,702
	기 타	-2,074	-367	-202	-750	-982	159
	계	13,717	4,564	9,687	12,950	14,717	3,536
법 인 세		2,323	801	1,755	2,727	2,844	1,005
당기순이익		11,394	3,763	7,932	10,223	11,873	2,532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8%p 상승한 101.2%를 기록함.
-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반면,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3.3%p 증가하여 FY2005 1/4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함.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 악화는 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화재, 해상, 특종보험의 손해율도 다소 악화되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05.9월 ~ '06.3월 기간 중 12.58%로 전년동기대비 1.19%p 증가하였으며, 의료수가 인상('06.1월 3.5%) 등으로 전체 손해율이 상승하였음.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1/4
손해율	화재보험	56.4	38.8	42.8	41.2	40.9	48.6
	해상보험	49.5	42.8	50.3	49.8	52.0	51.3
	자동차보험	72.7	71.5	73.0	76.8	76.6	77.2
	보증보험	25.3	27.9	10.7	-1.0	2.9	16.2
	특종보험	52.0	40.3	47.0	48.0	51.6	48.5
	해외원보험	41.0	29.1	43.3	55.6	52.4	26.1
	장기보험	87.9	85.6	85.6	85.7	86.4	86.7
	개인연금	123.8	117.6	118.7	119.1	125.9	119.9
	전 체	77.7	75.3	75.9	77.0	77.9	78.6
사업비율		23.1	22.1	22.6	22.9	23.2	22.6
합산비율		100.8	97.4	98.5	99.8	101.1	101.2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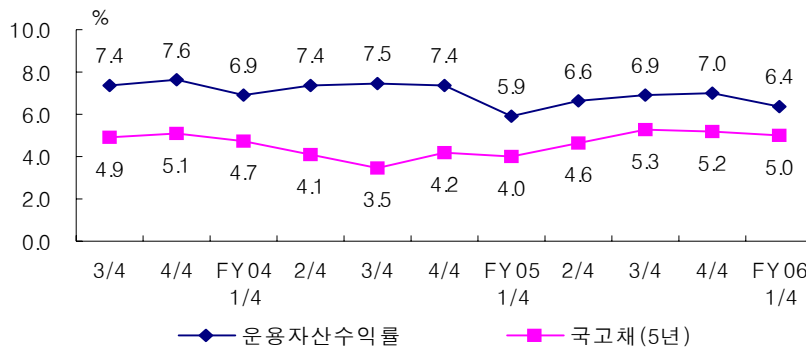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6.4%를 기록하였음.

○ 단기매매증권은 처분이익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8.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단기매매증권으로 운용되는 자산 비중이 축소되어 수익률은 다소 상승하였고,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 규모는 210.1%로 크게 증가함.

- 단기매매증권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7.7%를 나타내었고, 매도가능증권 수익률은 0.8%p 증가한 6.3%를 나타냄.

- 반면, 부동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3.3%의 수익률을 기록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한 35.9%를 나타내었고, 주식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1%p 확대된 6.8%를 나타내고 있음.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17.6%, 부동산은 0.6%p 감소한 7.3%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4.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1.3%p 감소하였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0	5.9	4.3	3.7	4.3	3.6	4.0	5.2	4.7	4.2
유 가 증 권	55.9	5.9	56.5	6.8	55.9	7.2	55.8	9.9	54.8	6.5
○단기매매증권	12.2	6.9	9.5	9.7	8.1	10.9	7.9	12.9	6.3	7.7
- 주 식	0.6	44.7	0.7	82.2	0.6	103.8	0.3	176.3	0.3	31.9
- 채 권 등	11.6	5.7	5.7	7.2	5.1	8.0	5.5	9.7	4.9	6.8
- 수익증권	0.1	4.3	3.2	4.5	2.4	4.5	2.0	6.1	1.0	5.9
○매도가능증권	40.0	5.5	43.2	6.0	43.7	6.4	43.7	9.1	44.5	6.3
- 주 식	5.7	5.2	6.9	8.0	7.5	7.8	7.2	13.8	6.8	7.1
- 채 권 등	33.3	5.6	34.9	12.6	34.7	5.9	35.1	9.3	35.9	6.1
- 수익증권	0.9	2.0	1.4	9.6	1.5	12.0	1.5	20.9	1.7	5.8
○만기보유증권	3.1	5.9	3.2	5.8	3.3	8.8	3.4	8.2	3.4	6.4
- 채 권 등	3.1	5.9	3.2	5.8	3.3	8.8	3.4	8.2	3.4	6.4
○투자주식 ¹⁾	0.6	34.3	0.6	18.6	0.7	19.9	0.8	27.5	0.7	12.0
대 출 채 권	18.0	7.9	17.6	7.9	17.6	8.1	17.9	8.0	17.6	7.8
부 동 산	7.9	2.6	7.7	3.1	7.5	3.5	7.4	3.5	7.3	3.3
운 용 자 산 계	85.7	5.9	86.1	6.6	85.2	6.9	85.1	7.0	84.4	6.4
비 운 용 자 산	14.3	-	13.9	-	14.8	-	14.9	-	15.6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5.1	100.0	5.7	100.0	6.0	100	12.2	100.0	5.5
	(96.6)	-	(96.7)	-	(96.2)	-	(96.3)	-	(96.4)	-
특 별 계 정 자 산	3.4	-	3.4	-	3.8	-	3.7	-	3.6	-
총 자 산	100.0	4.9	100.0	5.5	100.0	5.7	100.0	5.9	100.0	5.3

주 : 1) 수익률은 누적치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6 1/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TM/CM이 포함되어 있는 임직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8%p 증가한 14.2%를 기록하였음.
 -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9%p 증가한 3.9%를 나타내는 등 지속적 성장세를 보임.
- 보험설계사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2%p 소폭 상승한 반면, 대리점의 비중은 3.2%p 하락한 45.5%로 나타나 전통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1/4
회사직급	18,559	6,845	14,617	28,894	30,336	9,694
	8.2	11.4	12.0	12.3	12.2	14.2
보험설계사	80,439	20,929	43,592	66,438	89,616	23,953
	35.5	35.0	35.9	35.8	35.9	35.2
대 리 점	112,552	29,157	57,563	87,361	117,211	30,988
	49.7	48.7	47.4	47.0	47.0	45.5
중개인	2,123	766	1,302	2,133	2,677	573
	0.9	1.3	1.1	1.1	1.1	0.8
TM	5,445	-	-	-	-	-
	2.4	-	-	-	-	-
CM	1,426	-	-	-	-	-
	0.6	-	-	-	-	-
방카슈랑스	4,538	1,801	3,806	5,999	8,370	2,679
	2.0	3.0	3.1	3.2	3.4	3.9
공동인수	1,468	329	626	954	1,318	238
	0.6	0.5	0.5	0.5	0.5	0.3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6 1/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대리점과 임직원이 전년동기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설계사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음.

- 임직원의 경우 온라인 채널 실적의 성장에 힘입어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36.2%의 생산성 향상을 기록함.
- 설계사 조직에서는 장기손해보험 판매로 설계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1.6% 소폭 하락함.
- 대리점의 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2,026	24,738	22,223	25,611	25,804	25,730
	84,260.5	27,669.0	65,774.4	89,390.5	117,526.8	37,677.6
보험설계사	61,539	63,818	59,739	75,728	72,116	74,230
	130,711.7	32,795.0	72,970.3	87,732.5	124,256.8	32,269.0
대 리 점	45,953	45,785	43,193	45,758	45,646	45,493
	244,928.2	63,682.9	133,270.1	190,919.3	256,782.2	68,115.8

-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생보사의 보험판매구조 변화

- 금융감독원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보험판매 현황, 보험판매구조의 변화 등을 분석, 발표함.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판매현황>

방카슈랑스
판매는 연금 및
변액보험이
주도
중소형사가
가장 높은 M/S
차지

- 보험회사당 평균 14개(은행 8개, 증권회사 3개 등) 금융기관과 판매제휴를 체결하여 금융기관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상품은 연금보험과 변액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액보험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함.
- FY2005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입보험료는 총 4조 8,603억원(초회보험료는 2조 5,340억원)을 나타냄.
 - 방카슈랑스 시장에서는 중소형사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함.

<표 1> 회사그룹별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

구 분	FY03	FY04	FY05
대형3사	9,623 (39.3)	12,182 (32.6)	14,153 (29.1)
국내중소형사	9,372 (38.2)	13,741 (36.8)	22,671 (46.7)
외 국 사	5,519 (22.5)	11,442 (30.6)	11,779 (24.2)
계	24,514(100.0)	37,364(100.0)	48,603(100.0)

주 : 괄호 안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보험판매구조의 변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꾸준히 증가

-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 비중은 시행 첫 해인 FY2003에는 4.9%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FY2004 7.0%, FY2005 7.9%로 상승함.
- 중소형사의 판매비중이 21.9%로 대형3사보다 높은 편임.
-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판매 비중이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보다 26.1%p 하락한 반면, 대형3사는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 비중 변화가 미미함.
- 방카슈랑스 영업이 확대되면서 방카슈랑스 이용도가 높은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함.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방카슈랑스
영업 확대

- 중소형사의 경우, 생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FY2002 13.7%에서 FY2005 16.9%로 증가함.
- 외국사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이외에 기존 판매채널에서의 호조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함(FY2002 10.5%→FY2005 17.3%).
- 반면, 대형3사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당기순이익도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증가세, 대형3사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 회사그룹별 전체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

구 분	FY01	FY02	FY03	FY04	FY05
대형3사	78.0	75.8	72.0 (39.3)	68.5 (32.6)	65.9 (29.1)
국내중소형사	14.0	13.7	14.9 (38.2)	15.9 (36.8)	16.9 (46.7)
외국사	8.0	10.5	13.1 (22.5)	15.6 (30.6)	17.3 (24.2)

주 : 괄호 안은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방카슈랑스 전문회사 현황>

방카슈랑스
전문회사, 높은
보험료 성장률
시현

-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방카슈랑스를 전문으로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생명, SH&C생명, KB생명 등 3개사가 있음.
-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는 시행 초기부터 보험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단기간 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함.
- 방카슈랑스 전문회사 수입보험료는 FY2005 현재 총 9,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6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전문회사가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도 FY2005 0.5%에서 FY2004 .1%, FY2005 1.6%로 꾸준히 상승함.

<표 3> 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구 분	FY03	FY04	FY05
하나생명	수입보험료	1,337	2,199	1,635
	당기순이익	18	15	4
SH&C생명	수입보험료	1,128	2,582	5,012
	당기순이익	△32	19	63
KB생명	수입보험료	—	897	2,920
	당기순이익	—	△42	55
계	수입보험료	2,465	5,678	9,567
	당기순이익	△14	△8	122

(조혜원 선임연구원)

2.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 추진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항목
세분화 추진**

-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06년 9월 1일부터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

〈추진배경〉

-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보험가격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의 비교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3월부터 차종별, 연령별로 표준화된 유형을 선정하여 15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 공시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비교유형이 세분화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실제 자신의 가입조건에 맞는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및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비교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비교항목
확대를 통해
실질적 보험료
비교 가능**

- 연령, 가입경력 등 보험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입연령, 가입경력률, 가입담보, 운전자범위, 운전자연령 등 비교항목을 대폭 확대함.
 - 가입연령 : 7개(19,21,24,26,35,51,61) → 9개(19,21,24,26,31,38,41, 51,61)
 - 가입경력 : 2개(최초, 4년차 이상) → 3개(최초, 2년차, 4년차 이상)
 - 가입담보 : 1개(전담보) → 2개(전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제외)

- 운전자범위 : 1개(가족한정) → 3개(가족, 부부, 1인한정)
- 운전자연령 : 26세 → 가입연령별 차등적용
 - * 가입연령별로 전연령/21세/24세/26세/30세/35세 한정 특약을 차등 적용
- ⇒ 보험료 비교가능 유형 : 336개 → 3,888개

<기대효과>

- ☐ 자동차보험료의 비교공시대상이 확대되어 보험회사간 자동차보험료의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등 소비자의 권익 제고가 가능함.
- ☐ 보험가격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회사별로 강점이 있는 보험가입자 계층에 대한 마케팅이 강화됨으로써 회사별 경영전략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조혜원 선임연구원)

3. 손해보험회사의 정부추진 정책성보험 참여 현황

손해보험회사,
총 24종의
정책성 보험에
참여

- 금융감독원은 보험의 공익기능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정책성보험에의 손해보험회사 참여 현황을 정리, 발표하였음.

<정책성보험 주요 상품 현황>

- 정책성보험은 정부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으로서 대부분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현재 손보사에서 24종 보험을 판매함.
- 손해보험회사는 농작물 재해보험('01.3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04.8월) 및 풍수해보험('06.5월) 사업에 참여한데 이어 2006년 10월부터 가축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할 예정임.

<표 1> 정책성보험 주요 상품현황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 대상자	보상 한도액	소관부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법	과수재배농가	규정 없음	농림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	상해: 3,000만원, 질병: 1,500만원 항공료: 40~60만원 퇴직금: 월임금 8.3%	노동부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법	주택 등 시설소유자	규정 없음	소방 방재청
가축보험	축산법	축산농가	규정 없음	농림부

<주요 정책성보험 판매 현황>

- 농작물보험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으로 '01.3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 형태로 참여함.

농작물보험의
경우, 재보험사
형태로 손보사
참여

- 현재 7개 농작물(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뽕은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부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납입보험료의 71%를 지원함.
- 농협에서 농림부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원수 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민영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함.
- '06년 현재 농협이 25%만 보유하고, 민영 손해보험회사가 75%를 수재함.

<표 2>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입율	17.6%	18.3%	15.2%	18.2%	23.4%	25.0% (추정)
계약건수	8,678건	20,557건	18,538건	28,504건	31,813건	34,714건
보 험 료	5,483	14,559	27,640	42,509	72,549	81,675
지급 보험금	1,379	34,709	50,018	13,599	23,871	10,290
손해율 (순손해율)	25% (46%)	238% (433%)	181% (291%)	32% (42%)	33% (44%)	13% (17%)
대형손실	-	태풍 "루사"	태풍 "매미"	-	-	-
예정 손해율: 예정 사업비율	55% : 45%	55% : 45%	55% : 45%	100% : 0% (실비정산)	76% : 24%	77% : 23%
정부 지원	보험료 39%	보험료 59%	보험료 63.5%	보험료 62%	보험료 68%	보험료 71%
	순보험료 30%	순보험료 50%	순보험료 50%	순보험료 50%	순보험료 61%	순보험료 58%
	운영비 50%	운영비 70%	운영비 80%	운영비 실비정산	운영비 100%	운영비 100%

재보험 구조	농협 10% 손보사 90%	농협 9.75% 손보사 92.5%	농협 100%	농협 100%	농협 25% 손보사 75%	농협 25% 손보사 75%
국가 재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손해율 180% 초과분 국가담보	손해율 180% 초과분 국가 담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대형사 위주로
판매

-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상해, 출국비용(항공료), 퇴직금 등을 보장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함.
- 삼성화재에서 외국인전용보험을 개발하여 2004년 8월부터 판매 중이며, 동부, 현대, 메리츠, LIG보험은 판매 준비 중임.

<표 3>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상품 주요 내용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 업무외 상해사고 발생시	- 사망 : 가입금액(3천만원) - 후유장해 : 3천만원×지급률
질병	- 업무외 질병 발생시	- 사망 : 가입금액(1.5천만원)
귀국 비용 약정	- 체류기간 만료후 출국 - 만료전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 이탈근로자 자진출국/강제퇴거 및 사망	- 납입보험료의 100%(단, 보험개 시일로부터 30개월 이상일 경 우 납입보험료의 101%)
출국 만기 약정	- 근로계약 만료 출국 - 사업장 변경 -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 사망	- 납입보험료의 100.5%(단, 보험개 시일로부터 350일 미만일 경우 납입보험료의 100%)

풍수해보험은
2006년 5월
시범사업 실시

- 풍수해보험 :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이며, 손해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함.
- 동부화재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여 전국 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부는 보험가입자에게 납입보험료의 65%를 지원함.

- 동 보험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시설물(주택, 온실, 축사)에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직접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표 4> 풍수해보험의 주요 내용

대 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비율별 지급보험금		
		피해	50%	70%	90%
주택	전파 (全破)	재건축 불가피	3천만원×50% =1,500만원	3천만원×70% =2,100만원	3천만원×90% =2,700만원
	반파 (半破)	대수선 불가피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小破)	가등, 보 등 수선 불가피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축 개축	반파 침수	반파, 침수 주택이라도 이축, 개축을 희망할 경우 1,080만원	1,260만원	1,440만원
온실 축사	전파 (全破)	70% 이상	기준단가 ^{가)} ×5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가)} ×70%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가)} ×90% ×총피해면적
	반파 (半破)	35%~ 70%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小破)	20%~ 35%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주 : 1) 온실의 기준단가는 온실유형(철골유리, 철재파이프 등)에 따라 1제곱미터(㎡)당 2,280원(죽재하우스) ~ 104,156원(철골유리온실)
2) 축사의 기준단가는 축종유형(소, 돼지, 닭 등)에 따라 1제곱미터(㎡)당 39,000원(간이돈사) ~ 195,000원(번식돈사)

손해보험회사,
가축보험 상품
개발 준비 중

- 가축보험 : 각종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상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재생산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이며,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동 보험상품의 개발을 준비 중임.
- '97~'99년 3개년 동안 “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0년부터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함.

- 2006년 8월중에 민영 손해보험회사 중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07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대상 축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표 5> 가축공제 손익 현황(2001 ~ 200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원수 공제료	경과 공제료	지급 공제금	원수경과 손해율	사업비	영업이익 (손실)
소	59,322	51,874	55,164	106.3	9,705	△12,996
말	3,236	2,555	712	27.9	506	1,336
돼지	33,401	27,883	16,935	60.7	5,405	5,543
닭	2,682	2,136	851	39.8	423	862
총실적	98,641	84,448	73,663	87.2	16,039	△5,255

주 : 2005년도는 1 ~ 10월까지의 실적임.

(조혜원 선임연구원)

4. 신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동향

- 금융감독원에서는 FY2006 1/4분기 중 방카슈랑스,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CM) 통신판매 등 신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실적을 분석, 발표하였음.

<연도별 보험판매 추이>

생명보험은
변액보험
판매로 설계사
실적 증가

-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의 판매 호조로 FY2005 보험설계사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63.2% 급증함.
- FY2005 방카슈랑스는 안정성장을 위한 월납중심 판매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0.5%p 감소한 27.3%를 기록함.

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 및
비대면채널의
판매 증가

- 손해보험은 대형사 중심의 방카슈랑스 업무제휴가 중소형사까지 확대되어 방카슈랑스 부문의 판매 비중이 증가함(2.0%→3.3%).
- 비대면채널 실적은 온라인사 및 대형사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참여 증가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표 1> 모집형태별 신규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FY'03	FY'04	FY'05	증감	증가율	FY'03	FY'04	FY'05	증감	증가율
임직원	8,866	9,077	16,038	6,961	76.7	25,165	27,766	33,086	5,320	19.2
설계사	27,748	27,650	45,123	17,473	63.2	75,406	80,797	90,038	9,241	11.4
대리점	5,206	4,815	6,267	1,452	30.2	108,796	115,475	121,537	6,062	5.2
중개사	0	20	1	△19	△95.0	1,875	2,145	2,870	725	33.8
방 카	22,434	25,289	25,340	51	0.2	813	4,538	8,370	3,832	84.4
기 타	1	3	1	△2	△66.7	1,727	1,468	1,319	△149	△10.1
합계	64,255	66,853	92,770	25,917	38.8	213,782	232,189	257,220	25,031	10.8
대면	N.A.	65,624	91,445	25,821	39.3	N.A.	220,214	239,859	19,645	8.8
비대면	N.A.	1,228	1,324	97	7.3	N.A.	11,975	17,362	5,387	45.0

주 :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실적임.

<FY2006 1/4분기 생명보험 신판매채널 현황>

**변액보험 판매
확대로**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증가**

□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실적은 변액보험 판매확대에 따라 매분기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05년 7월 변액보험 상품의 금융기관 취급 증가로 인해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도 변액보험 판매가 크게 확대, 판매상품중 40% 이상을 점유함.

FY06 1/4분기

**홈쇼핑판매는
급감**

□ 홈쇼핑을 통한 판매실적은 매분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FY2006 1/4분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함.

○ 일반 TM의 경우에도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발효 효과 및 신용 정보 활용요건 강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하락함.

<표 2> 신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추이(생명보험)

(단위 : 억원, %)

구 분	FY'05				FY'06	
	1/4분기 (A)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B)	증감율
1. 대면모집	15,340	19,087	28,572	28,445	20,392	32.9
(방카슈랑스)	5,061	6,417	6,296	7,566	5,735	13.3
2. 비대면모집	374	279	293	378	285	△23.8
(일반TM)	286	204	185	276	226	△21.0
(홈쇼핑TM)	71	90	94	112	58	△18.3
(CM)	17	0	14	0	1	△94.1
합계	15,714	19,366	28,865	28,823	20,677	31.6

**중소형 손보사,
방카슈랑스
실적 증가**

<FY2006 1/4분기 손해보험 신판매채널 현황>

□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대형사 중심의 판매제휴로 판매가 부진했던 중소손보사의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전년 동기대비 48.8% 증가).

자동차 온라인
상품 비중
지속적 증가

- 통신판매를 통한 자동차보험 모집실적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신규시장 진출('06.4월) 및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

<표 3> 신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추이(손해보험)

(단위 : 억원, %)

구 분	FY'05				FY'06	
	1/4분기 (A)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B)	증감율
1. 대면모집 (방카슈랑스)	57,545 1,801	57,842 2,005	64,743 2,193	59,736 2,371	64,115 2,679	10.6 48.8
2. 비대면모집 자동차보험 (일반TM)	3,691 2,617	4,221 2,970	4,685 3,040	4,764 3,111	5,144 3,244	39.4 24.0
(홈쇼핑TM)	3,100	3,488	3,542	3,708	4,009	29.3
(CM)	146	349	680	554	678	364.4
	445	384	463	502	459	3.1
합계	61,236	62,063	69,428	64,500	69,259	13.1

<할인점·편의점을 통한 보험판매 실적>

- '06.7월말 현재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회사가 6개 할인점·편의점과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05.4 ~ '06.6월 기간 중 보험회사가 할인점·편의점과 연계하여 총 407억원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음.
- 보험상품이 정형화되어 판매가 용이하고 의무보험 성격인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회사는 394억원을 판매하여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생명보험사의 판매실적은 미미함.
 -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판매 실적은 총 363억원으로 전체의 89.1%를 점유하였음.

<표 4> 할인점·편의점을 통한 보험판매 실적('05.4월 ~ '06.6월)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수	초회 보험료	수입 보험료	건수	원수 보험료	자동차
홈플러스	5,243	167	908	80,765	35,440	35,440
GS리테일	-	-	-	589	34	-
이마트	-	-	-	419	157	149
롯데마트	1,462	71	325	6,855	3,592	3,592
보광훼밀리마트	-	-	-	589	34	-
메가마트	-	-	-	451	175	175
합계	6,705	238	1,233	89,668	39,432	39,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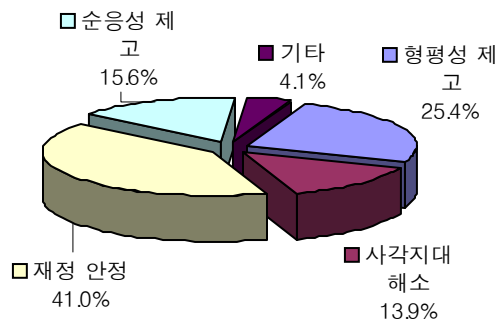
(조혜원 선임연구원)

5. 국민연금 전문가 80% : “연금개혁이 빠를수록 좋다”

연금관련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가
가장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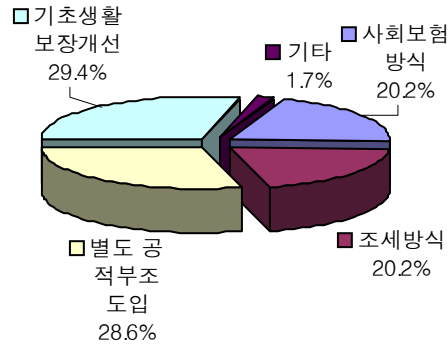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은 6.12~15(4일간) 연금관련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관련 과제, 노령빈곤 해소방안, 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율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서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로 답하여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됨.

<그림 1> 국민연금제도 우선과제



-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세대간의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가 43%, ‘빠를수록 좋으나 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가 39.7%로 나타나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82.7%에 달함.
-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29.4%,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도입’이 28.6%로 보편적 제도보다는 선별적인 소득지원제도를 선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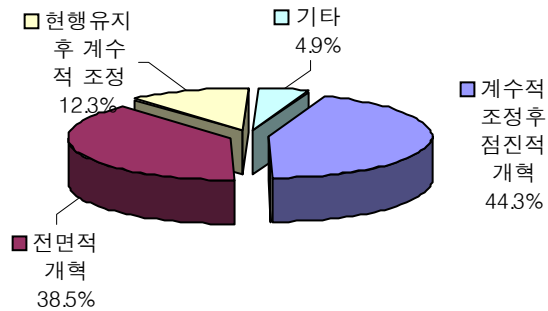
<그림 2>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점진적 개혁이 바람직

-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계수적 조정 후 점진적 개혁’이 44.3%, ‘전면적 개혁’이 38.5%,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 12.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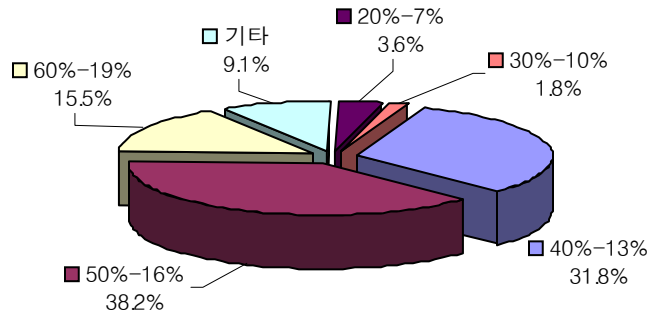
<그림 3>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향



-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합항에서는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6%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0%-13%는 31.8%, 60%-19%는 15.5%로 조사되어, 가장 적절한 소득대체율은 40-50% 내외이며, 보험료율은 13-16%로 나타남.

<그림 4> 적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전문가 다수는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재정안정의
필요성을 공감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대다수가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재정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 이에 따라 이번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박정희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북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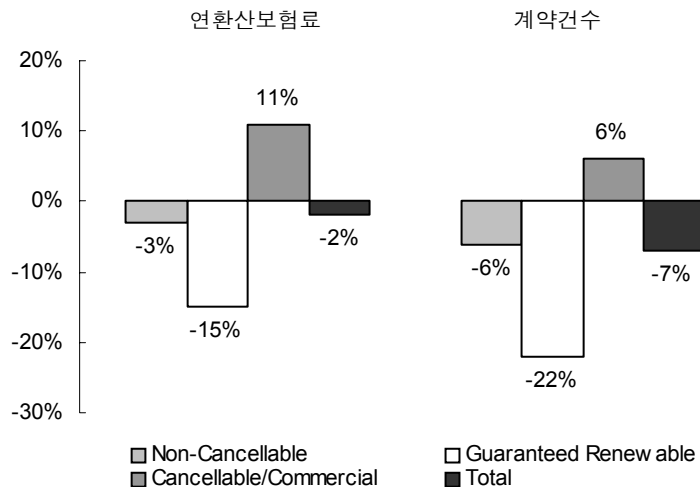
<캐나다, 소득보상보험 : 일부종목만 성장지속>

LIMRA, 캐나다
소득보상보험
에 대한
조사를 실시

- LIMRA International은 개인 소득보상(DI)보험에 대해 7개의 캐나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보고서를 작성함.
- 개인 DI보험판매는 2006년 상반기 신계약건수기준 7%, 보험료 기준 2% 감소함.
- 취소가능한 기업성 상품(cancellable/commercial 상품)은 캐나다 보험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세가 지속되는 종목으로 2003년 초반이후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임.

Cancellable/Com
mercial 상품은
유일하게
성장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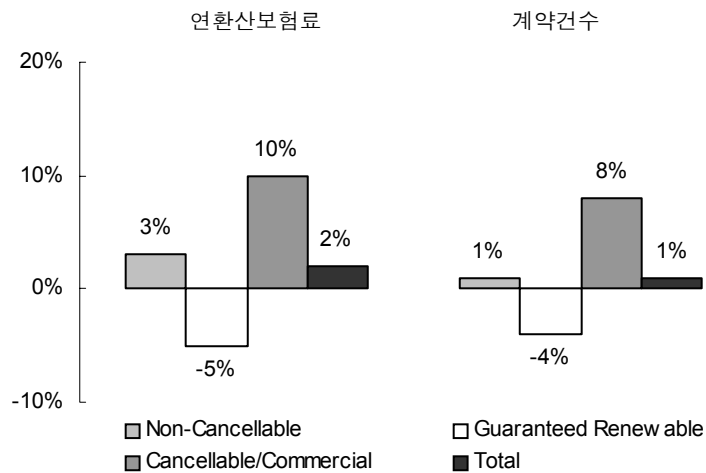
<그림 1> 캐나다 개인소득보상보험 신계약 성장률(2006년 2/4분기)



- 2006년 상반기, 보험료와 보험급부는 각각 11%씩 성장했으며, 신계약건수는 6%성장함(<그림 1> 참조).
- o Guaranteed Renewable 상품은 보험료, 보험급부 및 계약건수 모두 15%, 16% 그리고 22% 각각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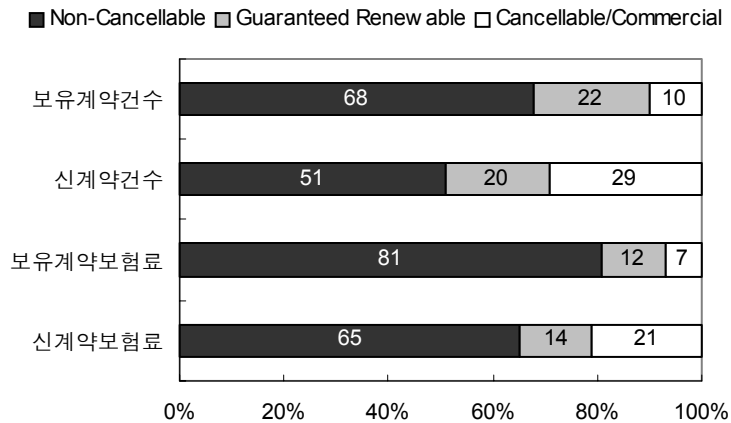
Guaranteed
Renewable
상품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그림 2> 개인소득보상보험 보유계약 성장률(2006년 2/4분기)



- 개인 DI보험의 신계약보험료와 계약건수는 하락했으나, 보유계약건수는 변함이 없었음.
- o 2006년 상반기, 보증부 갱신가능 상품은 4% 가량 시장점유율을 Cancellable/Commercial 상품에 내주었음.
- o Cancellable/Commercial 보험의 판매는 상반기 신계약보험료의 3%를 나타냄.

<그림 3> DI보험 종목별 비중



신계약당
평균보험료와
급부는 모두
증가

□ 신계약에 대한 계약당 평균 보험료(<표 1>) 및 월평균 급부(<표 2>) 실적을 보면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계약판매가 증가함.

- Non-cancellable 상품의 평균 월급부는 2,966달러로 2005년 동기대비 9%가 증가했으며, 계약당 보험료는 1,448달러로 동기대비 3% 증가함.

<표 1> 개인소득보상보험 계약당 평균 보험료

(단위 : 달러)		
	신계약	보유계약
Non-Cancellable		
2006 2/4분기	1,448	1,393
2005 2/4분기	1,405	1,373
Guaranteed Renewable		
2006 2/4분기	831	652
2005 2/4분기	759	656
Cancellable/Commercial		
2006 2/4분기	823	826
2005 2/4분기	784	813

<표 2> 개인소득보상보험 계약당 평균 월급부

(단위 : 달러)

	신계약	보유계약
Non-Cancellable		
2006 2/4분기	2,966	2,845
2005 2/4분기	2,725	2,786
Guaranteed Renewable		
2006 2/4분기	1,890	1,447
2005 2/4분기	1,752	1,431
Cancellable/Commercial		
2006 2/4분기	1,775	1,778
2005 2/4분기	1,686	1,716

- * Non-cancellable : 피보험자는 정기적인 보험료납입에 의해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보증된 보험료율은 사전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보험사 임의대로 변경될 수 없음. 계약이 효력을 갖는 한, 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또한 급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 Guaranteed Renewable : 피보험자는 정기적인 보험료납입에 의해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계약당일에 회사는 동일군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변경을 할 수 없음.
- * Cancellable/Commercial : 피보험자는 정기적인 보험료납입에 의해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계약당일에 회사는 계약에 정해진 사유로 보장갱신을 거부하고 동일군의 모든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와 급부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단지 건강악화를 기초로 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음.

자료 : LIMRA International, "Canadian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urvey", Second Quarter 2006.

(김진익 선임연구원)

보험동향 2006년 가을호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 1년 후>

□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는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났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 등 결과를 사건 후 1년을 기해 조사 발표함.

III,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보험금지급사항을 조사

○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기록상 가장 피해가 심했던 재난으로 170만건의 보험청구와 이에 따른 총피보험손실만 406억달러(추산)를 야기했음.

□ 사건 후 1년이 지난 현재, 거의 95%의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보험청구와 99%의 자동차보험 청구가 해결되었음.

○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약 658,700명의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액이 103억 달러가 지급되면서 94.8%의 처리율을 보임.

○ 미시시피주에서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이 약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폭풍으로 손상되거나 전파된 차량에 대해 682,000건의 보험 청구를 접수하고 32억달러를 지급함.

거의 95%의 주택소유자의 보험청구와 99%의 자동차보험청구가 처리

□ 재난의 규모와 접수된 보험금청구의 규모는 보험금지급과정의 복잡함을 가증시킬 수 있으나, 오직 소수의 지급청구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고 중재 또는 소송 중임.

○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주택소유자의 2%이하가 분쟁 중임.

-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에서는 분쟁 중인 카트리나관련 보험금 청구를 다루기 위해서 중재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나 전체 분쟁건수는 소수이며, 모두 처리되고 성공률도 높았음.
-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주택소유자 보험금 청구의 단지 1.1%만이 중재에 들어갔으며, 미시시피주에서도 보험금 청구 중 0.79%만이 중재에 들어감.
- 루이지애나 보험청에 따르면, 약 3,473건의 보험금 청구 중재안이 주내에서 처리됨으로써 77%의 조정률을 나타냄.
 - 또한 미시시피 보험청은 약 1,669건의 중재건을 처리하였고, 2006년 8월 11일까지 약 2,800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조정 성공률은 80%를 상회함.
- 홍수피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송중인 보험금청구건수는 전체에서 소수에 불과함.
 - 단지 몇 천 건의 카트리나 관련 지급청구가 소송중인 것으로 추정됨.

2005년
주택소유자보
험금지급금은
루이지애나에
서 25년치,
미시시피주의
17년치
보험료와
맞먹음

- 2005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기록적인 주택소유자 보험금지급액은 루이지애나 주택소유자보험료의 25년치와 미시시피 주택소유자 보험료의 17년치와 맞먹음.
- 루이지애나의 주택소유자 보험사업자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한 보험금으로 127억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1981년 이후 주에서 지불된 모든 주택소유자 보험료와 같은 규모임.

- 미시시피주의 주택소유자 보험사업자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한 보험금으로 55억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1989년 이후 주에서 지불된 모든 주택소유자 보험료와 같은 것임.
- 2006년 3월 31일 보험사의 재무적 보험금지급 역량은 2005년말 4,271억달러에서 4,401억달러로 3%인 130억달러가 증가함.

자료 : III, "Hurricane Katrina: one year later", 2006

(김진익 선임연구원)

2. EU 동향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연금개혁(A-Day)에 대한 전망과 견해>

① 연금개혁에 따른 현재의 시장상황 조사

2012년 새로운
연금제도개혁
(NPSS) 소개

□ Datamonitor는 영국정부의 A-Day 규제와 2012년에 소개될 전국 연금저축감독(NPSS : National Pension Saving Supervisory) 모델 등 연금개혁에 관한 95명의 금융어드바이저(IFA :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의 견해를 조사,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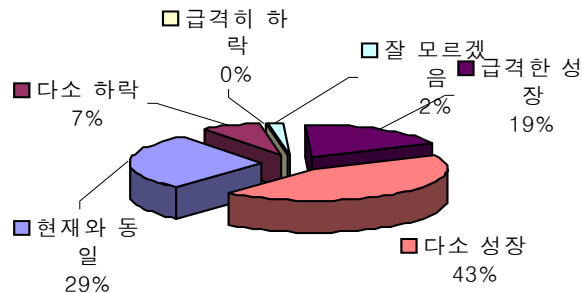
○ 참여한 패널리스트들 중 2/3는 총유동자산이 30,000~200,000유로를 가진 비부유층 그룹을 주된 고객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주요 고객이 될 것임.

□ 금융어드바이저들의 대부분은 향후 6개월 동안 연금시장이 제한된 성장을 보일 것이라 전망함.

제도개혁에
따른 예상되는
시장변화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금융어드바이저들은 전반적인 시장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없었고, 응답자의 43%를 차지한 다수가 제한된 성장을, 19%는 급격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봄.

<그림 1> 연금시장의 변화 예상



세금혜택이 큰
ISA 상품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금융어드바이저들은 정기(Term), 보장성(Protection), CI보험 및 변액보험과 같은 14개 상품들 중 개인저축계좌(ISA :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판매가 가장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주식에만 한정되어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주식저축(PEP : Personal Equity Plans)의 실패로 인해 세금혜택을 대폭 확대된 대체 상품으로 등장한 상품임.
- ISA 상품성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21%, 다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남.

금융어드바이
저들의 상품
및 보험사에
대한 선호도는
신중함

- ②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상품 및 보험사에 관한 선호도
- 생명보험회사와 뮤추얼펀드회사에 대한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생명보험회사와 뮤추얼펀드회사들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긍정(1), 부정(-1), 중립(0)으로 응답한 순위는 아래와 같음.

<표 1> 기업에 대한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선호도 상위 10

순위	기업명	점수	순위	기업명	점수
1	Fidelity	70	2	Invesco Perpetual	67
3	Jupital	66	4	Skandia	54
5	Credit Suisse	50	6	M&G Group	45
7	Legal & General	41	8	Schroders	41
9	JP Morgan Fleming	40	10	Standard Life	39

뮤추얼펀드회
사가
보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임

- 금융어드바이저들은 생명보험회사보다는 뮤추얼펀드회사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함.
- 상위 10개사 중 3개사만이 보험회사였으며, 상위 3개사가 모두 뮤추얼펀드회사로 나타남.

- 보험회사와 뮤추얼펀드회사에 대한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입장은 25%만이 50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금융어드바이저들의 입장이 여전히 신중한 것을 의미함.
- 이들 중 상위 5개사만이 평점 50을 넘었으며, 하위 10개 기업들은 모두가 평점이 40이하로 조사, 그 중에서도 최하위 5개사는 평점 22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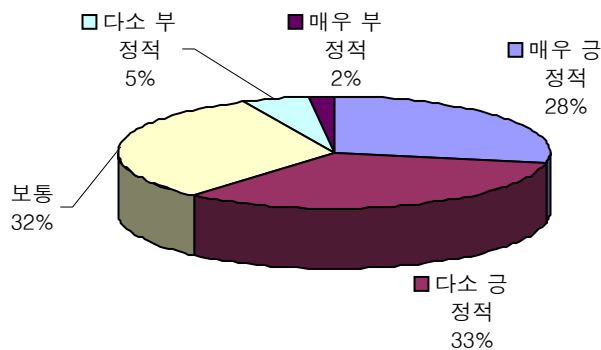
③ A-Day의 영향

- 2006년 4월 6일 발표된 연금개혁규제(A-Day)의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세금제도 체계 하에 소비자와 금융어드바이저들의 보다 용이한 이해를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로 전향하는 계기가 됨.

A-Day 개혁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A-Day 규제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금융어드바이저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0% 미만인 소수만이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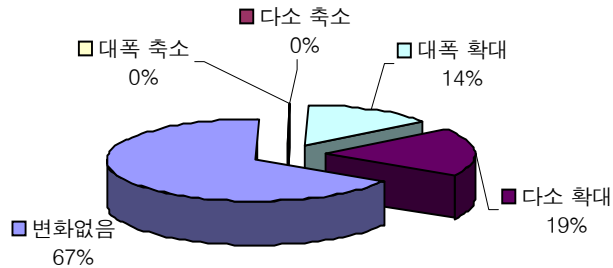
<그림 2> A-Day 개혁에 따른 영향 변화



- 연금제도개혁의 부작용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67% 정도가 4월 6일 A-Day 규제변화에 따른 개인투자연금(SIPP : Self Invested Personal Pensions) 시장의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그러나, 33%가 약간의 성장추세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SIPP 시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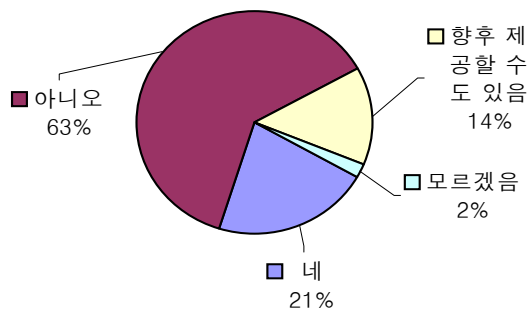
<그림 3> A-Day 개혁에 따른 SIPP 시장의 변화 여부



- 단체 SIPP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상품이거나 복잡한 형태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어드바이저들 중 21%가 이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14%는 향후 취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 비록 이러한 SIPP 상품의 취급 비율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향후 시장성장에 대해서는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금융어드바이
저들은 단체
SIPP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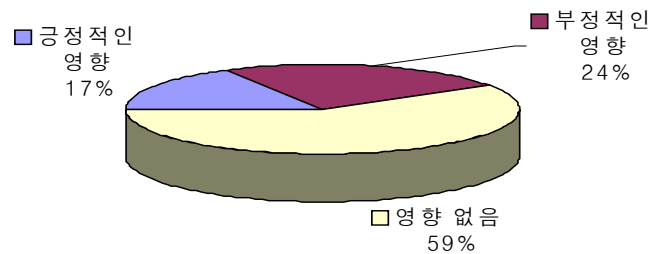
<그림 4> 단체 SIPP 상품 취급 여부



④ 정부개혁의 장기적인 영향

- 전국연금저축제도(NPSS)는 제도변화에 의해 모든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등록되거나 사업자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러한 선택권을 거부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강제적인 성격과는 다르게 유연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금융어드바이저들은 제안된 NPSS 개혁이 그들의 판매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함.

<그림 5> 전국연금저축제도(NPSS)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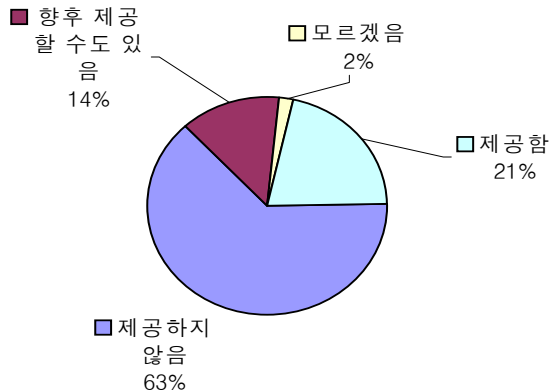


⑤ 향후 전망

**단체SIPP
상품은 미래
보험시장의
주요사안이
될 것임**

- 단체SIPP 상품은 단체연금시장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등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 단체SIPP 상품은 투자선택이 확대됨에 따라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어드바이저들의 15%만이 단체SIPP의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35%로 나타남.

<그림 6> 향후 금융어드바이저들의 단체 SIPP 상품 제공 여부



연금시장
변화에 의해
금융어드바이
저들의
조언이 필요

- 비록 정부가 개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융어드바이저들은 전국연금저축제도(NPSS)를 공식적인 위치에서 일련의 펀드로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는 지속적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변화된 요구사항들을 시장에 적용한다면 보다 이상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어드바이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안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임.
- 만약 연금시장의 급속하게 감소한다면, 금융어드바이저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타분야의 수익 계획이 준비되어야만 함.

자료 : Datamonitor, A-Day Impact - "Financial Advisor' opinions on the Pensions Crisis" , July 2006

(박정희 연구원)

<유럽 : 보험의 역할과 향후 전망>

- 유럽의 생명보험시장에서 보험의 보증요소(guarantees)*는 일찍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전면인 변화를 하고 있음.

유럽의
보험의
시장변화와
향후 전망

- * 여기서 보증요소(guarantees)는 구체적으로 보험상품 중 보장성(Protection)보험과 연금(annuity)과 같이 위험과 이율의 불확실이 보험사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을 언급함.
-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보험상품의 보증 조항이 어떻게 검토되었으며, 향후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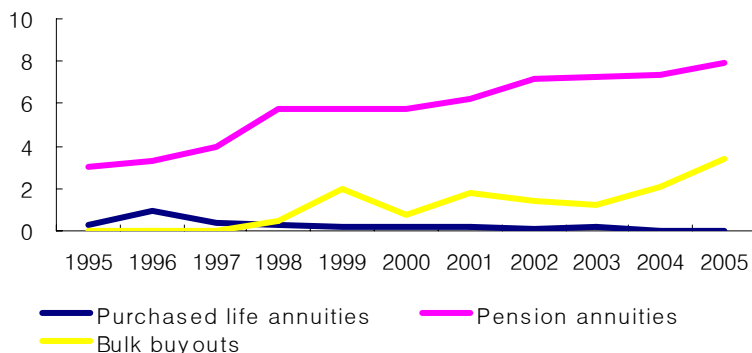
① 영국은 보험의 보증요소에 대해 매력력이 존재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영국의 생명보험사들이 리스크인수자에서 자산관리자로의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는 특별한 점이 없음.
- 이는 보험사들이 펀드매니저들과 직접적인 경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보장성 보험과 연금은 보험의 특화된 형태로 정책입안자들에게 받아들여짐.
- 보증요소(guarantees)로 인해 보험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연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과
연금수요 현황

<그림 1> 형태별 연금 신규판매 현황

(단위 : 백만파운드)



보험동향 2006년 가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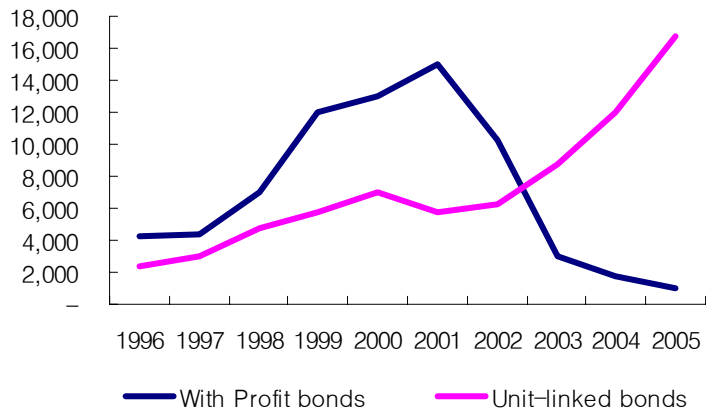
보증요소를
지닌 보험의
성격을 지닌
상품들의 패턴
변화

- 보증요소를 기본으로 한 또 다른 보험인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익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수입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가격의 투명성으로 인한 상품경쟁이 심한 편이기는 하나, 보험사들은 사망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음.
- 보증요소를 지닌 또 다른 상품인 일시납 유배당보험의 보험료가 2001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변액보험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그림 2> 유배당보험의 일시납 보험료 판매 패턴 변화

(단위 : 백만파운드)

일시납
유배당보험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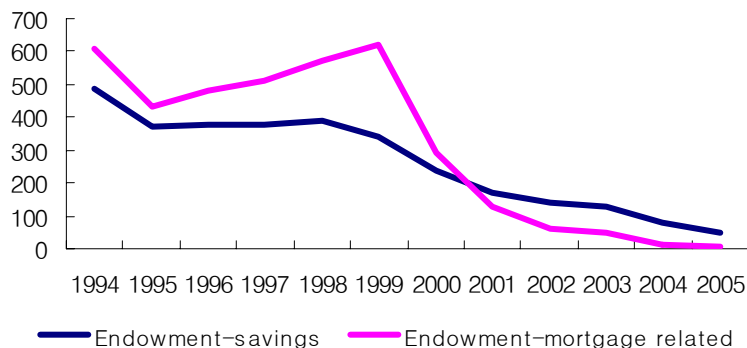
- 이러한 현상은 고객들이 유배당 저축성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데 기인함.
- 이런 일시납상품의 보험료 감소는 보증요소를 갖는 보험의 배당금 지불에 따른 고비용과 고정된 이익배당의 구조에 기인한 것임.
-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부가 점차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변화된 요구가 점점 받아들여졌기 때문임.

- 이에 규제당국은 자본적정성 모델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대한 확대된 규제조항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강한 규제로 인해 저축성 보험이 IFA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 이런 저축성보험의 감소는 특히 생사혼합보험의 감소로 직결되어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됨(<그림 3>).

<그림 3> 저축형 상품인 배당보험의 하락세

(단위 : 백만파운드)

일시납 유배당
보험 판매가
소멸추세임



- 향후 보장성 보험의 시장은 보험사 입장을 고려한 계약을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연금시장에서는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줄어들어지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임.
- 고객들은 모기지 상품을 비롯한 장기치료비용에 대한 보장성 보험이 판매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다양한 형태의 투자형 보장성 보험이 계약에 따라 보장되어진다면, 보장성 연금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이 제시될 것임.

□ 리스크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분산시키는 보험사들의 기본 설립 취지에 따라 개인에게 보장성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 봄.

○ 향후 보험사들은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자산축적에 보다 주력할 것이며, 보험사의 이러한 변화가 자본여력을 바탕으로 한 펀드 매니저들의 서비스 및 이외의 것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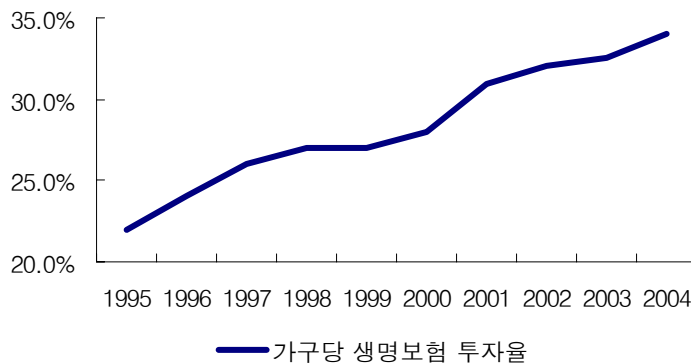
②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 판매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저축성 금융상품보다 나은 이윤을 주기 때문임.

□ 프랑스의 생명보험산업은 투자로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지난 10년 이상 프랑스 가구당 신 금융투자의 평균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향후 보장성
보험 시장에
대해 고객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

○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생명보험의 투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4>).

<그림 4> 가구당 전체 금융투자 중 생명보험 비중



□ 그러나 이런 인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여전히 생명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과거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

- 20세기 초반 퇴직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이 제공됨으로써 퇴직 후 수입을 의존하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다른 하나는 저축의 상당부분을 판매수수료의 형식으로 설계된 생사혼합보험 상품의 실패에 기인함.
- 이 같은 상황은 약 30년 전부터 혁신적인 배당형 생사혼합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전되었음.
- 생명보험 상품은 저축수단으로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계약에 따른 부가적인 특별이익에 따른 것임.
- 이는 세율의 혜택에 앞서 리스크가 없는 투자라는 점과 국고채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주기 때문임.
- 보험사의 저축시장 진출은 25년 전 은행들이 생명보험을 부수사업으로 하면서 유사상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곧 방카슈랑스 성장으로 이어졌음.
- 오늘날 생명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63%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투자의 모든 경로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보험의 전통적인 판매채널들도 프랑스의 저축시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
- 프랑스생명보험의 성공요인은 투자형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활성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변액보험이 더해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이 투자하고 있음.
-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사 모기업의 자산관리 기업에 의해 보다 확대된 범위의 펀드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증요소를 지닌 보험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프랑스의
보험산업은
지난 10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독일의
생명사들은
보증요소를
축소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임

③ 독일의 생명보험사는 독창적인 판매 계획의 부재 위험이 있음.

□ 1970년대 초반부터 독일의 생명보험사들은 보증요소를 지닌 보험을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의 리스크를 점차적으로 줄여왔음.

- 이는 보험산업에서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나, 보증요소를 지닌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가 점차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함.
- 독일 생명보험산업은 표준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강한 규제를 받기도 했었으나, 매우 유동적이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음.

□ 70년대 초반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증요소가 제한적인 보험(변액생명보험)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이 상품은 이율 보장 없이 주식시장에 완전 개방상태로 제공되었으며,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임.
- 한편, 보험사의 이익과 이율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함.

□ 1990년대 중반에서야 고객들은 제한된 보장성 보험이 높은 수익률을 나타냄으로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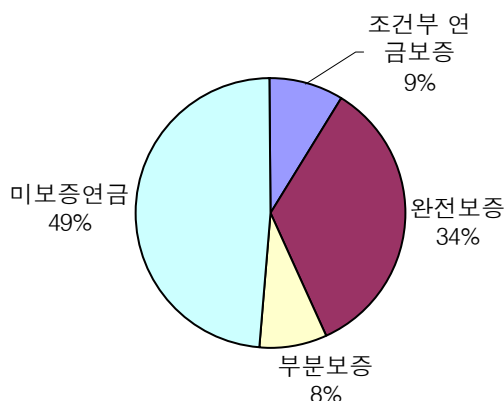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부터
보장성보험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배당형 상품의 규제는 전통적인 상품과 변액상품 사이의 절충적인 관계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두 상품 간의 차이를 최소화 함.

-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증요소를 지닌 보험에 대한 4가지 형태의 보장성 부분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은 이러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그림 5> 변액상품에서의 보증 부분(132개 변액연금)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보장성 부분이
다양하게 제시

- 무보증(No guarantee)
: 연금의 요소는 계약의 시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결정되어 짐.
- 부분보증(Partial guarantee)
: 연금비율이 비율의 퍼센트나 축적된 자산의 부분 적용하여 일부 보장됨.
- 취소가 가능한 보증(Revocable guarantee)
: 수탁자가 진행과정에 관여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의해 보증 비율이 철회될 수 있음.
- 완전보증(Full guarantee)
: 보험사들은 추후 협상없이 완전한 연금율로 보증함.

-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은 고객들이 이러한 상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고객들의 보증요소를 지닌 보험과 관련 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압력으로 작용함.

자료 : Towers Perrin, *Market Trends and Opportunities across Europe*, June 2006

(박정희 연구원)

3. 일본 동향

〈일본, 제3분야 보장용 사망표 신설〉

일본
제3분야 보장용
별도 사망률
신설

□ 일본에서는 사망률이 남성의 경우 평균 12%, 여성은 약 18% 낮아짐에 따라, 8월 1일 사단법인 일본 계리인(actuary)회에서는 「표준사망률」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 이 사망률 변경의 목적은 책임준비금 평가용 기초율 및 제3분야 보장용 별도 사망률을 마련함.
- 변경된 사망률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나, 각 회사별 자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사망표 개정안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사망보험용
사망률 적용의
경우,
생존의료급부를
지급받을
확률이 적다는
문제점 상존

□ 사망표 개정의 주요 목적은 제3분야 상품의 사망률을 신설하는 것으로 종래의 제3분야 상품은 사망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 사망보험용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사망률을 제3분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역으로 생존할 확률이 작은 것으로 간주됨.
- 주계약과 하나의 상품일 경우, 주계약의 사망과 관련된 위험차익이 그 부분을 커버하게 되어 전체 위험차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제3분야 보장을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이에 따라, 제3분야 보장용(사망률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안전성을 감안한) 사망표를 신설하여 적용토록 함.

**고령화 등
사망률 추세
반영**

- 두 번째 목적은 현행 사망률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30세 전후에서 5% 상승하였다는 점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률의 개선 경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자살은 중고생만이 아닌 다른 연령에서도 증가함에 따라 30세 전후에서의 사망률은 자살 및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한 영향을 받아 남성 1/1000, 여성은 1/2000 가량 상승함.
- 세 번째 목적은 연금개시 후의 사망률의 안전도 예상시 보다 신중하도록 하기 위함임.
-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망률 개선도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개인연금은 10년 확정연금이 대부분으로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계약자는 적은 편임.
- 즉, 향후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연금분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임.

자료 : 保險毎日新聞, “第三分野保障用の死亡表新設”, 2006. 8.10.

<일본, 대형은행의 보험 창구판매를 통한 개인연금 성장>

**일본은행들의
방카슈랑스
특징 등 정리
발표**

-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보험판매 동향은 2006년 들어 새로 취급하기 시작한 상품이나 통신판매 상품 등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음.
- 각 은행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① 개인연금 중심의 판매, ② 상품내용의 확대, ③ 판매자격 취득 및 컨설팅 능력 확충, ④ 점도의 개선 및 신설점포의 설치 등 추진, ⑤ 여성과 베이비붐 세대 등 의식, ⑥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에 대한 준비 등임.

개인연금
방카슈랑스
판매의 대부분
차지

- ① 개인연금보험이 방카슈랑스 판매를 주도하는 이유는 소비자 니즈가 높고 수수료 수입 때문임.
- 최초로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된 손보 상품으로는 주택론과 관련된 화재보험 계약은 거의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채무변제 지원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음.
-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ATM(자동거래기기)을 설치한 은행도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 계약이 일반적임.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변경

- ② 상품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상품의 개발을 도모하고 소비자 니즈·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품을 개정하거나 신상품을 투입하는 등 공통점이 많음.

판매전문인
확충에 노력

- ③ 보험판매자에 대한 자격취득과 관련해서는 삼정주우은행이 ‘섭외 담당 FC’와 창구에서 대응하는 ‘MC(Money Consultant)’가 2,000인이며, 미즈혼은행에서도 FC 2000인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음.
- ‘부유층 의식’, ‘compliance 중시’ 등도 각 은행에서 언급하고 있음.

점포의 개량 및
서비스 확대

- ④ 미즈혼은행은 일반적인 점포를 개량하여 소규모 premium salon의 설치를 추진하여 금년도 말까지 설치 점포 수를 250개로 확대하는 등 은행들의 점포 개혁도 본격화되고 있음.
- 미쓰이스미토모에서는 평일 영업시간을 연장, 휴일에도 영업함으로써 각종 상담에 대응하는 「SMBC 컨설팅 플러스」를 100개 점포에 설치할 계획이며, 컨설팅업무에 특화한 「SMBC 컨설팅 오피스」도 오픈 예정임.

여성,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마케팅

- ⑤ 「여성」을 별도의 마케팅 대상으로 취급하는 전략은 3년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시장규모 면에서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은행들은 이를 표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음.

방카슈랑스
전면 허용에
따른 준비

- o 2006년 6월부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통신상품에서도 여성전용 상품을 개발하였음.
 - o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제2의 인생을 보내는 50대 후반의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One's Next Group 50s」 서비스를, 미즈혼은행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인생 지원 포럼」을 개최하였음.
 - 이들 은행에서는 통신판매 상품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⑥ 일본 방카슈랑스가 전면 허용되는 시점에서 각 은행들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o 미쓰이스미토 은행은 「제3차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은 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상품이기에 때문에 취급에 앞서 상품성이나 제안수법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임.
 - o 미즈혼은행은 방카슈랑스 전면 허용 시 제3분야 상품에 기대하고 있으며, 연금·투자신탁 등의 운용상품 판매에 있어서 착실하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UFJ은행에서는 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 保險毎日新聞, “大手銀行 「個人年金」が成長 保險窓販で新展開”, 2006. 7.14.

(조혜원 선임연구원)

4. 중국 동향

<중국, 외국 자본의 보험대리업/중개업 시장 진출 관련 동향>

외자계
기업들의 중국
보험대리업/
중개업 진출에
관심

- 최근 외자계 기업들의 중국 보험대리업 및 보험중개업에의 진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중국 보험중개업에의 진출에 대한 관련 규제, 진출 조건 등을 검토함.

(1) 외자계 기업의 보험중개업 진출 관련 규제 및 규제완화

① 관련 제도의 개혁과 변화

□ 보험대리업 관련 법 정비

- 1996년 2월 2일 중국인민은행은 잠정적 행정규정인 「보험대리인 관리의 잠정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함.
- 1997년 11월말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기의 잠정규정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행정법령인 「보험대리인의 관리규정」(이하 「대리인규정」이라 함)을 공포함.
- 2001년 11월 20일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대리기구에 대한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보험대리기구의 관리규정」을 공포하였음.
- 2004년 12월에는 WTO 가맹 3년을 계기로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대리기구의 관리규정을 개정한 「신관리규정」을 공포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음.

□ 보험중개업 시장 현황

- 중국의 보험브로커회사 수는 2006년 5월 현재 284개사에 달하며 2년 전과 비교하여 87개사가 증가하여 4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험브로커회사들의 수입은 2005년 1~9월까지 약 7.74억 위안에 달하고 있음.

**보험법 개정
이후,
전속대리회사와
보험대리를
겸업하는
회사에 대한
1사전속주의
완화**

② 보험대리업 관련 규제완화

□ 보험법 개정 전의 규제

- 중국에서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모집인을 「보험대리인」이라 하며, 보험대리인은 전업보험대리인, 겸업보험대리인, 개인보험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전업대리인으로 전업대리인은 보험대리인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보험대리회사를 지명하고 보험대리회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함(대리인규정 18조).
- 보험법에서는 보험대리인의 업무에 대해 「생명보험의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보험대리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보험자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보험법 124조2항)고 규정함.

□ 보험법 개정 후의 규제완화

- WTO 가맹 이후 중국에서는 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함)에서는 보험대리에 대하여 전업대리회사와 보험대리를 겸업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
- 개정법은 「개인보험대리인은 생명보험의 대리업무를 행함과 동시에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개정법 129조)고 하여 생명보험업무를 영위하는 개인보험대리인은

「1사전속」의 제한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음.

- 반면, 전속대리회사와 보험대리를 겸업하는 회사에 대하여 「1사전속」의 규제가 완화되어 2사 이상의 보험업무를 대리함이 가능해졌음.

**보험대리회사는
실제 등록하고
있는
행정지역에서만
업무 가능**

- 보험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지역 제한
 -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회사(겸업대리를 포함)에 대하여 지역제한을 두고 있음.
 - 즉, 보험대리회사는 보험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행정지구내에서 해당 행정지구내 등록을 마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있음.
 - 다시 말하면, 보험대리회사는 실제로 등록하고 있는 행정지역의 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있고 지역을 이탈하여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보험중개회사의 관리규정에서도 보험대리회사에 대한 지역제한조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개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됨.

(2) 보험중개업의 외자 참여 현황

- 중국에서는 보험대리회사, 보험브로커회사 및 보험사정회사 등을 「보험중개기구」로 불리우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음.

(1) 보험브로커회사의 영업범위(지역제한)

- 보험브로커회사의 영업범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보험대리회사와 보험브로커회사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보험대리회사의 영업범위

- 보험대리회사의 영업범위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표하는 「보험대리기구의 관리규정」(2004년 12월 1일)에서 「보험대리기구의 업무 영위 지역은 회사의 주소 소재의 성, 자치구, 직현시로 한다」(87조)고 정하고 있음.

② 보험브로커회사의 영업범위

- 보험브로커회사의 영업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브로커회사 관리규정」(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04년 12월 1일 공포)에서 「보험브로커회사는 전국에서 보험중립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제84조)고 정하고 있음.

보험대리회사,
보험브로커회사
설립 관련 심사
등 규제가 상이

<보험대리업무 관련 가능성 검토>

- 외자계 보험대리회사 또는 보험브로커회사의 설립에 관한 심사 권한이 있는 감독관리부문 내부의 역할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 외자계 보험대리/브로커회사 설립 심사

출자회사	출자방법	출자비율	심사 담당부	장단점
외국기업	합병·자본 산입	25%이상	국제 협작부	- 심사가 엄격함 - 심사에 시간이 소요됨 - 보험업무 관련 사무소 설립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외국기업	합병·자본 산입	25%미만	보험 중개부	- 심사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음 - 심사시간이 짧음 - 사무소설립 관련 조건의 제한 이 없음
중국법인 자격의 외국기업	합병·자본 산입	출자비율은 관련없음	보험 중개부	- 심사가 엄격하지 않음 - 심사시간이 짧음 - 사무소설립 관련 조건의 제한 이 없음

**외자계
보험브로커회사
심사는
국제합작부
중국계
보험브로커회사
심사는
보험중개부에서
담당**

- 전술한 바와 같이 외자계 보험대리회사의 심사 및 인가를 담당하는 행정관리부문은 보험중개부와 국제부이지만, 외자계 보험대리회사가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은 상황임.
- 외자계 브로커 라이선스의 심사 및 인가는 국제합작부에서 담당하고, 중국계 브로커의 심사 및 인가는 보험중개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외자에 의한 중국 보험중개분야에의 진출방법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내부의 규정에 기초하여 외자 기업이 중국계 보험브로커회사 또는 보험대리회사와 합병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자본산업을 불문하고 외자계 기업의 출자율이 25% 이내의 경우, 심사는 보험중개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 중국계 보험브로커회사 또는 보험대리회사와 합병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산입에 상관없이 외국 자본이 25%를 초과하여 출자율이 25% ~ 100%인 경우 그 심사는 국제합작부에서 담당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출자율이 25% 미만의 경우와 25% 이상의 경우에 대해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내규에서 심사담당부분, 수속 내용이 상이함.

**외자의
보험대리업
브로커업
진출은
합병회사, 출자
독자 설립,
업무제휴 등
4가지 방식**

-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규정에 있어서의 「외자」의 개념은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의 법인격을 가진 외자계 기업은 외자가 아니며, 내국기업으로 보험브로커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석됨.
- 현재 중국에 있어서 외국 자본이 보험대리시장 또는 보험브로커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다음의 4가지 방식이 있음.
 - ① 합병회사를 설립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합병 보험브로커회사에 대해 심사하며, 진출 조건도 비교적 엄격함.

**합병회사 설립
방식이 가장
엄격한 진출
조건 및 심사**

- 진출조건으로는 첫째, 보험업자로의 경험이 30년 이상으로 ② 중국에서 사무소를 2년 이상 설치하였으며, ③ 신청 전년도말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인 경우임.
-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심사 시간이(보통 1년) 필요함.

② 자본 산업

- 자본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지만 외자 기업 측의 출자비율에 따라 그 난이도가 상이함.

③ 독자적 설립

- 독자적 설립은 현재 WTO 가맹시의 협약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00% 독자 보험브로커회사의 설립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공포하지 않았음.

④ 업무제휴

- 많은 외자계 기업들이 채택하는 방법으로 중국계 보험대리회사 또는 보험브로커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현지 보험대리회사 또는 보험브로커회사와 제휴하는 방법임.

자료 : 保險毎日新聞, “中國保險仲介業進出に關する實行性”, 2006.8.14-15.

(조혜원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5				CY2006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2.7	3.3	4.5	5.3	6.1	5.3
경상수지		5,877	2,603	2,649	2,430	-1,118	692
수 출		66,808	69,703	71,098	76,811	73,892	81,467
수 입		60,627	63,695	66,228	70,688	72,264	76,368
실업률		3.7	3.8	3.8	3.6	3.5	3.5
금리	국고채(3년)	3.96	3.79	4.32	4.99	4.94	4.87
	회사채(3년)	4.41	4.19	4.73	5.40	5.38	5.15
소비자물가지수		117.0	117.6	118.3	118.4	119.7	120.4
(상승률)		3.2	3.0	2.3	2.5	2.3	2.4
환율	원/달러	1,024.3	1,024.4	1,038.0	1,013.0	975.9	960.3
	엔/달러	107.5	110.4	113.3	117.8	117.3	115.1
종합주가지수		965.68	1,008.16	1,221.01	1,379.37	1,359.60	1,238.7
외환보유고		205,447	204,986	206,731	210,391	217,344	224,357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5				CY2006	
	1/4	2/4	3/4	4/4	1/4	2/4
보 험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생명보험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손해보험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은 행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일반계정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신탁계정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증 권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투 신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중 금	19,416	2,048	-10,616	40,443	5,651	31,812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 존 보 험	보험료	29,385	121,366	28,600	29,441	30,125	31,722	119,887	30,188
	성장률	4.2	4.9	1.2	-5.6	-7.4	8.0	-1.2	5.6
	구성비	21.9	22.6	20.9	20.8	17.2	19.7	19.5	19.2
사 망 보 험	보험료	65,798	255,338	66,402	67,289	68,182	69,342	271,215	69,685
	성장률	9.6	11.3	7.4	6.5	5.7	5.4	6.2	4.9
	구성비	49.1	47.5	48.5	47.5	38.8	43.2	44.1	44.3
생사혼합 보험	보험료	19,076	79,646	18,312	18,700	18,070	17,514	72,596	16,689
	성장률	-13.0	-15.7	-8.6	-7.7	-10.9	-8.2	-8.9	-8.9
	구성비	14.2	14.8	13.4	13.2	10.3	10.9	11.8	10.6
변액보험	보험료	11,456	23,789	12,093	16,215	24,761	30,752	83,822	27,479
	성장률	386.3	212.2	334.3	392.4	295.8	168.4	252.4	127.2
	구성비	8.6	4.4	8.8	11.5	14.1	19.1	13.6	17.5
개 인 보험계	보험료	125,714	480,140	125,408	131,646	141,137	149,330	547,521	144,041
	성장률	11.7	7.4	11.1	11.6	14.2	18.8	14.0	14.9
	구성비	93.9	89.3	91.6	93.0	80.4	93.0	89.1	91.7
단 체 보 험	보험료	8,177	57,366	11,526	9,891	34,486	11,298	67,201	13,095
	성장률	5.8	1.1	39.5	12.8	7.2	38.2	17.1	13.6
	구성비	6.1	10.7	8.4	7.0	19.6	7.0	10.9	8.3
전 체	보험료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성장률	11.3	6.7	13.0	11.7	12.8	20.0	14.4	14.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1,794	71,150	17,888	18,534	21,078	22,329	79,830	18,366
	증가율	24.1	18.1	15.9	18.2	15.5	2.5	12.2	2.7
	지급률	74.2	58.6	62.5	63.0	70.0	70.4	66.6	60.8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24,863	90,676	22,699	24,360	24,793	27,316	99,169	25,910
	증가율	19.7	21.8	11.6	12.5	4.1	9.9	9.4	14.1
	지급률	37.8	35.5	34.2	36.2	36.4	39.4	36.6	37.2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27,781	102,335	24,453	25,818	35,996	23,330	109,596	18,080
	증가율	3.4	-14.8	-3.6	9.4	40.6	-16.0	7.1	-26.1
	지급률	145.6	128.5	133.5	138.1	199.2	133.2	151.0	108.3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1,467	2,905	598	847	1,509	2,463	5,417	3,317
	증가율	353.0	311.6	49.9	109.4	137.5	67.9	86.4	454.7
	지급률	12.8	12.2	4.9	5.2	6.1	8.0	6.5	12.1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75,905	267,067	65,638	69,558	83,377	75,439	294,012	65,672
	증가율	15.8	4.5	6.7	13.4	22.1	-0.6	10.1	0.1
	지급률	60.4	55.6	52.3	52.8	59.1	50.5	53.7	45.6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5,618	49,159	14,651	11,957	16,466	18,729	61,803	17,208
	증가율	-8.7	-20.5	32.0	14.0	37.8	19.9	25.7	17.6
	지급률	191.0	85.7	127.1	120.9	47.7	165.8	92.0	133.5
전체	지급보험금	91,522	316,226	80,289	81,515	99,843	94,168	355,815	82,898
	증가율	10.8	-0.4	10.5	13.5	24.4	2.9	12.5	3.2
	지급률	68.4	58.8	58.6	57.6	56.9	58.6	57.9	52.8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사업비	5,851	16,576	3,775	4,331	5,010	5,523	18,639	5,562
	증가율	64.2	17.4	11.8	19.5	34.5	-5.6	-4.9	47.3
	사업비율	19.9	13.7	13.2	14.7	16.6	17.4	15.5	18.4
사망보험	사업비	20,444	68,599	16,078	15,790	16,913	16,437	65,218	15,872
	증가율	23.9	11.2	1.5	-2.0	4.3	-19.6	-4.9	-1.3
	사업비율	31.1	26.9	24.2	23.5	24.8	23.7	24.0	22.8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5,443	14,988	5,444	5,497	5,828	6,124	22,894	5,770
	증가율	170.9	96.0	162.0	73.1	35.8	12.5	52.7	6.0
	사업비율	28.5	18.8	29.7	29.4	32.3	35.0	31.5	34.6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
	증가율	-	-	-	-	-	-	-	-
	사업비율	-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31,737	100,164	25,298	25,618	27,751	28,085	106,750	27,203
	증가율	43.8	20.0	18.8	11.8	14.6	-11.5	6.6	7.5
	사업비율	25.2	20.9	20.2	19.5	19.7	18.8	19.5	18.9
단체보험계	사업비	1,203	3,087	686	734	935	845	3,200	765
	증가율	60.4	13.0	19.9	21.2	32.5	-29.8	3.7	11.5
	사업비율	14.7	5.4	6.0	7.4	2.7	7.5	4.8	5.9
전체	사업비	32,941	103,251	25,983	26,351	28,686	28,929	109,950	27,968
	증가율	44.3	19.8	18.8	12.1	15.1	-12.2	6.5	7.6
	사업비율	24.6	19.2	19.0	18.6	16.3	18.0	17.9	17.8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94	751	913	785	3,243	756
	성장률	4.1	13.2	10.7	14.6	10.4	-4.8
	구성비	1.3	1.2	1.3	1.2	1.3	1.1
해 상	보험료	1,399	1,412	1,280	1,186	5,277	2,101
	성장률	10.7	0.2	1.3	4.4	4.1	50.2
	구성비	2.3	2.3	1.8	1.8	2.1	3.0
자동차	보험료	21,386	22,062	22,342	22,100	87,890	22,598
	성장률	2.6	2.5	1.6	6.1	3.1	5.7
	구성비	34.9	35.5	32.2	34.3	34.2	32.6
보 증	보험료	2,255	2,391	2,791	2,630	10,067	2,972
	성장률	-4.2	9.7	25.8	15.9	11.6	31.8
	구성비	3.7	3.9	4.0	4.1	3.9	4.3
특 종	보험료	5,745	5,744	6,263	5,152	22,904	6,143
	성장률	13.0	12.9	10.1	14.3	12.4	6.9
	구성비	9.4	9.3	9.0	8.0	8.9	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29	143	164	173	609	156
	성장률	-37.8	-33.0	-13.0	-7.1	-23.5	20.9
	구성비	0.2	0.2	0.2	0.3	0.2	0.2
장 기	보험료	26,459	27,435	28,736	29,932	112,562	31,564
	성장률	16.1	16.5	16.3	18.3	16.8	19.3
	구성비	43.2	44.2	41.4	46.4	43.8	45.6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4	1,715	1,788	1,789	6,979	1,836
	성장률	-3.5	2.1	5.5	6.5	2.6	9.0
	구성비	2.8	2.8	2.6	2.8	2.7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1,383	410	5,162	752	7,707	1,133
	성장률	101.8	-42.7	41.7	29.8	37.1	-18.1
	구성비	2.3	0.7	7.4	1.2	3.0	1.6
계	보험료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성장률	9.8	8.8	11.6	12.8	10.8	13.1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8.8	42.8	41.2	40.9	48.8
	사업비율	53.8	52.3	55.2	53.2	46.2
	합산비율	92.6	95.1	96.4	94.1	95.0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2.8	50.3	49.8	52.0	51.3
	사업비율	28.3	29.3	32.2	31.0	27.7
	합산비율	71.1	79.7	82.0	83.0	79.6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1.5	73.0	76.8	76.6	77.2
	사업비율	30.6	31.1	31.4	31.9	31.4
	합산비율	102.0	104.1	108.3	108.5	108.6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7.9	10.7	-1.0	2.9	16.2
	사업비율	12.8	18.4	17.2	21.3	12.5
	합산비율	40.7	29.1	16.2	24.2	28.8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0.3	47.0	48.0	51.6	48.5
	사업비율	25.1	24.9	25.6	25.8	22.1
	합산비율	65.4	72.0	73.6	77.4	70.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29.1	43.3	55.6	52.4	26.1
	사업비율	73.1	65.6	64.8	72.9	97.7
	합산비율	102.2	108.9	120.4	125.3	123.8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5.6	85.6	85.7	86.4	86.7
	사업비율	15.6	15.9	16.2	16.5	17.4
	합산비율	101.2	101.5	128.6	103.0	104.1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7.6	118.7	119.1	125.9	119.9
	사업비율	9.9	9.6	9.6	10.0	9.5
	합산비율	127.4	128.4	128.6	135.9	129.4
전 체	경과손해율	75.3	75.9	77.0	77.9	78.6
	사업비율	22.1	22.6	22.9	23.2	22.6
	합산비율	97.4	98.5	99.8	101.1	101.2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연구조사자료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태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중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 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도서관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관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6년 가을호(통권 39호)

2006년 10월 10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쇠 소 대 화 인 쇠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